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



연구책임자 |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 김양우 원장
연구참여자 |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 김지선 연구원
| 한국사회투자,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문성식 연구원
|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 조인근 보조원

2016 사회적경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수요조사 및 정책자금평가연구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Tel 02.353.3553 / Fax 02.383.3553 홈페이지 www.sehub.net / 이메일 info@sehub.net
편집총괄	디자인그룹 SNP

-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보고서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제1장	조사개요	7
1.	조사배경 및 목적	8
2.	조사내용	10
제2장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실태조사	13
1.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설문조사	14
2.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공급기관 FGI	35
3.	2013 - 2016년 자금수요조사 결과 종합비교분석	41
제3장	결론	47
1.	시사점	48
2.	과제 및 한계점	52
부록1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설문조사지	55
부록2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조사응답결과	63
부록3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공급·수요 관련 FGI 면담지	79
부록4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공급·수요 관련 FGI녹취록	81
참고문헌		91

표 차례

〈표 1〉 조사개요	12
〈표 2〉 자치구별 분포	14
〈표 3〉 업력별 인지하고 있는 평균 자금조달정보 수	17
〈표 4〉 해결하는 사회문제 유형별 선호대출기관	18
〈표 5〉 향후 필요자금의 용도에 따른 조달환경 인식	19
〈표 6〉 향후 필요자금의 규모에 따른 조달환경 인식	20
〈표 7〉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의견개진	22
〈표 8〉 필요자금과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의 관계	23
〈표 9〉 필요자금과 담보 제공 역량	25
〈표 10〉 기업유형과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28
〈표 11〉 대출기간과 대출금액간의 관계	30
〈표 12〉 대출 상환방식과 대출용도와와의 관계	31
〈표 13〉 FGI 참여기관 리스트	35
〈표 14〉 FGI 수행개요	36
〈표 15〉 기관별 사회적경제 조직 용자규모와 용자 조건(2014.1 ~ 2016.6)	37
〈표 16〉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부자금조달 인지도(2013 ~ 2016)	42
〈표 17〉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2013 ~ 2016)	43
〈표 18〉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자금 구간 (2013 ~ 2016)	43
〈표 19〉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자금 주요용도(2013 ~ 2016)	44
〈표 20〉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용가능 최고금리 수준(2013 ~ 2016)	45
〈표 21〉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용가능 적정상환기간(2013 ~ 2016)	45
〈표 22〉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2013 ~ 2016)	46

그림 차례

<그림 1> 통합방법론	11
<그림 2> 인지하고 있는 자금조달 정보	16
<그림 3> 자금조달 정보취득 경로	17
<그림 4> 선호하는 대출기관	17
<그림 5> 전년대비 자금조달 환경변화	19
<그림 6> 사회적금융이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가져야할 차별성	20
<그림 7>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이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가져야할 차별성	21
<그림 8>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	21
<그림 9>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	22
<그림 10> 대출로 자금조달시 담보조건	23
<그림 11> 물적 담보제공 가능여부	24
<그림 12> 담보 가능한 금액의 범위	24
<그림 13> 대출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인적보증은 어떠해야하는가	26
<그림 14>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용경험	26
<그림 15> 신용대출 시 이자상환 부담이 느껴지는 금리	27
<그림 16> 대출 이외에 경험한 자금조달 방법	27
<그림 17> 지분투자 시 선호 자금조달처	28
<그림 18> 주요 자금조달 방법	29
<그림 19>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	29
<그림 20>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기간	30
<그림 21> 조달자금의 상환방식	31
<그림 22> 필요자금의 주요 유형	32
<그림 23> 필요자금 규모의 구간	32
<그림 24> 대출 시 걱정 상환기간	33
<그림 25> 연중 자금 필요시기	33



제 1 장 조사개요



01

조사배경 및 목적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발전하여 왔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다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돕는 정책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은 특성상 경영·재무적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서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령의 부재로 부처별 지원정책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느끼는 혜택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경제주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역시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의 자금 수요 및 조달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매년 그 흐름을 확인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재)한국사회투자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미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수요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자금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 작년에 사정상 중단된 본 조사를 다시금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금번에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발주처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업데이트된 조사대상 DB를 확보하였으며 발주처와의 연구 추진 관련 협의에 따라 조사대상을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에 국한하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설문과 함께 주요 정책금융공급기관들의 방문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02 조사내용

| 통합방법론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접목시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교차시키는 통합방법론(integrated methods)의 사용이 논의 및 시도되고 있다.

통합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결합을 통해 두 가지 방법의 결과를 수렴하거나 서로 보완하여 이용하며, 기대와 다르게 수렴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각적 관찰과 측정을 통해 사회현장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조사를 이와 같은 통합적방법론을 기반으로 실시한 것은 조사대상인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점, 자금수요 및 공급에 대한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자금공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 통합방법론을 위한 조사 구성

본 조사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의 특성, 정책자금 공급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합한 사회적경제 조직 전용 정책자금 모델 등을 통합방법론을 통해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자금수요조사를 위한 양적 연구로는 서울시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융자 현황, 기존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혜택여부와 이에 따른 만족도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향후 사회적기업 등을 위한 정책자금 운용의 방향성과 수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한편 양적연구에서 파악하기 힘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질적조사방법으로서 FGI를 총 2회 실시하였는데, 정책자금 공급 기관 및 수요기관의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급을 대상으로 융자 실적, 심사과정, 선정 시 애로사항 등의 정책자금 공급 시 고려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을 인터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구성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합방법론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267개소 16.7.18일자), 마을기업(150개소 16.2월말 기준), 사회적협동조합(115개소 15.12.31일자)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함께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3개 기관 및 수요기관 5개에 대하여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실시하였다.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자금조달과 자금수요, 대출조건, 기업 일반 현황 등을 공통적으로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자금수요 및 정책자금 이용에 관한 질문을 더욱 세밀하게 디자인하였다.

자금공급기관의 경우에는 설문지를 배포하지 않고, FGI를 실시해 융자실적, 심사프로세스, 상담 및 심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정책자금공급기관		
조사기간	2016년 5월 26일 ~ 2016년 7월 22일		
조사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지 배포 및 회수 -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항목	인증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조달현황	조달방법,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 등
		자금수요	필요 자금 구간, 필요 자금 용도 등
		대출조건	금리, 담보, 기간, 보증 등
		일반현황	유형, 업종 위치, 매출액 규모 등
	자금공급기관 및 수요기관	융자현황	융자 규모, 조건, 부실률 등
		심사프로세스	심사기준, 프로세스 등
		프로그램 홍보	사업홍보채널, 사회적기업 이해도 등



제 2 장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실태조사



01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설문조사

| 응답자 분석

가. 지역별 특성

설문에 대한 총 응답은 73건이었으며 자치구별로는 마포구 8개(11.0%), 은평구 7개(9.6%, 성동구 6개(8.3%), 금천구, 성북구, 용산구 각각 5개(6.8%) 순으로 응답자 분포가 많았다.

〈표 2〉 자치구별 분포

자치구	응답건수	응답비율	자치구	응답건수	응답비율
강남구	4	5.4	강동구	2	2.7
강서구	1	1.4	관악구	3	4.1
광진구	4	5.5	금천구	5	6.8
노원구	1	1.4	도봉구	3	4.1
동작구	3	4.1	마포구	8	11.0
서초구	2	2.7	성동구	6	8.3
성북구	5	6.8	송파구	2	2.7
양천구	1	1.4	영등포구	4	5.5
용산구	5	6.8	은평구	7	9.6
종로구	4	5.5	중구	3	4.2
계	73	100			

나. 응답자별 특성

응답자별 특성은 대표자 29명(39.7%), 중간관리자 18명(24.7%), 실무자·직원 14명(19.2%), 이사 10명(13.7%), 기타 2명(2.7%)로 나타났다.

다. 조직 유형별 특성

유형별 특성은 인증사회적기업 52개(71.2%), 사회적협동조합 13개(17.8%), 마을기업 6개(8.2%)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이 24개(46.6%)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형 16개(30.8%), 혼합형 6개(11.5%)가 뒤를 이었다.

조직형태는 상법에 따른 회사 33개(51.6%), 협동조합 16개(25%), 비영리민간단체 5개(6.8%), 사단법인 4개(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라. 사업 분야별 특성

사업 분야별 특성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개(16.4%), 제조업 11개(15.1%), 도매 및 소매업 10개(13.7%), 교육·서비스업 8개(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개(9.6%)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혹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청년,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28개(38.4%),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 13개(17.8%), 환경보호 및 보존 6개(8.2%), 지속가능하며 자발적인 예술, 문화, 여행사업 24개(32.9%), 소셜하우징 2개(2.7%)로 나타났다.

마. 업력별 특성

업력별 특성에서 설립연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시기를 기준으로 2007년 이전 14개(19.2%), 2008년~2009년 16개(21.9%), 2010년~2011년 12개(16.4%), 2012년~2013년 21개(28.8%), 2014년~2015년 10개(13.7%)로 나타났다.

바. 규모별 특성

고용 중인 근로자수는 21인 이상 20개(27.4%), 5인 이하 18개(24.6%), 6인~10인 17개(23.3%), 11

인~15인 11개(15.1%), 16인~20인 7개(9.6%)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는 2억 원~5억 원 20개(27.4%), 1억 원~2억 원 18개(24.7%), 5천만 원 미만 12개(16.4%), 5억 원~10억 원 9개(12.3%), 10억 원 이상 8개(11.0%), 5천만 원~1억 원 6개(8.2%)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10억 원 이상 22개(30.1%), 5억 원~10억 원 19개(26.0%), 1억 원~2억 원 11개(15.1%), 2억 원~5억 원 10개(13.7%), 5천만 원~1억 원 6개(8.2%), 5천만 원 미만 5개(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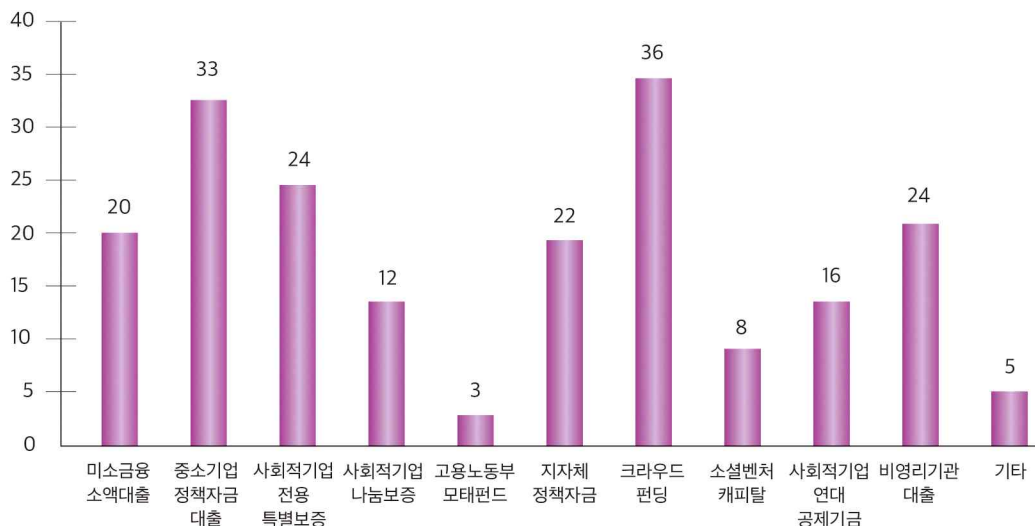
| 분석결과

가. 정보접근성

자금조달 인지도, 정보취득경로, 선호대출기관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수요기관들이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조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존 자금조달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클라우드 펀딩 36개(50.7%),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33개(46.5%),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신용보증재단) 및 비영리기관 대출(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등) 각각 24개(33.8%), 지자체 정책자금(사회투자기금) 22개(31.0%), 미소금융 소액대출 20개(28.2%)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고용노동부 모태펀드와 소셜벤처캐피탈은 4.2%, 11.3%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클라우드펀딩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인지도는 2개 중 1개 기업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는 큰 규모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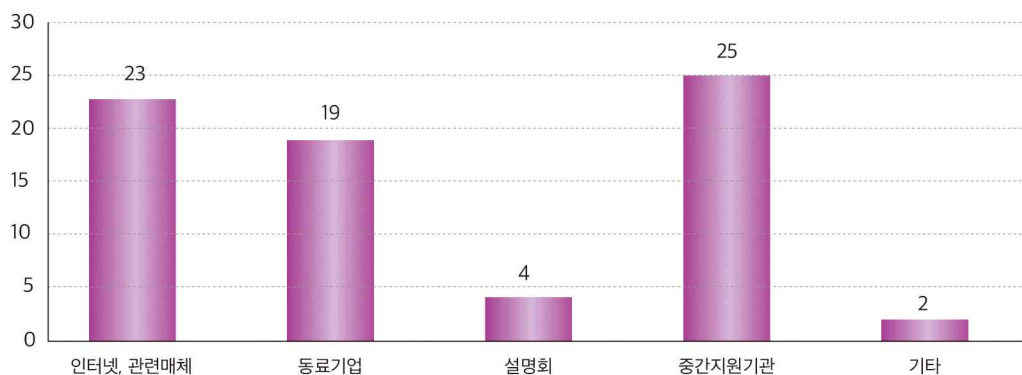
〈그림 2〉 인지하고 있는 자금조달 정보

업력별 자금조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따지기 위해 응답수를 기관수로 나누어 평균 응답횟수를 비교한 결과, 업력이 5~6년에 해당하는 기업의 인지정도가 평균 2.92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별 인지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용 가능한 자금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업력별 인지하고 있는 평균 자금조달정보 수

업력	1-2년	3-4년	5-6년	7-8년	9년 이상
평균 응답수	2.60	2.90	2.92	2.56	2.86

자금조달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에 대해서는 중간지원기관이 35.5%, 인터넷 및 관련매체가 32.3%, 동료기업(주변 사회적기업) 25.8%, 설명회 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자금조달 정보취득 경로

선호하는 대출기관에 대해서는 56.2%(41개)가 정책 자금 대출이라고 응답했으며 27.4%(20개)가 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출, 9.6%(7개)가 일반 금융기관 대출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출이 일반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선호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선호하는 대출기관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별로 기업 간 정보공유가 원활하며 비슷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별로 선호하는 대출기관을 분석하였다.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의 유형과 무관하게 대부분이 정책자금 대출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비영리기관에서의 대출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성과와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관, 자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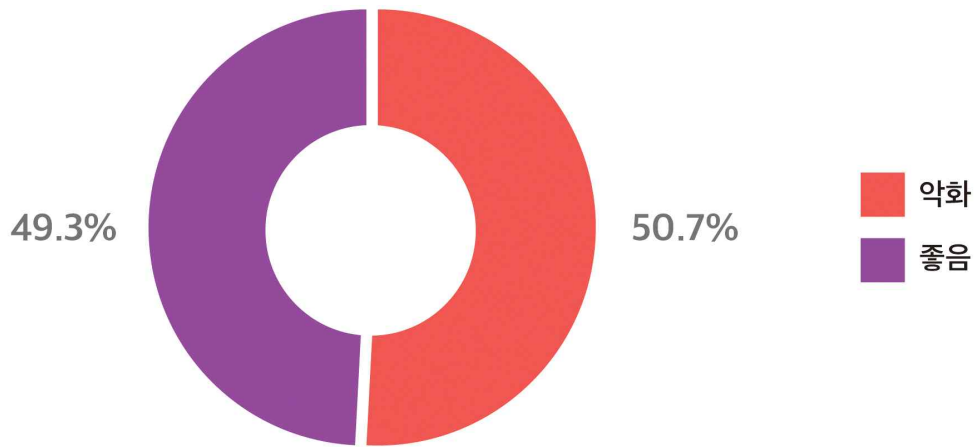
〈표 4〉 해결하는 사회문제 유형별 선호대출기관

분류	사회문제					전체
	일자리	사회 서비스	환경	문화 · 예술	사회 주택	
일반금융기관	2	1	1	3	0	7
	7.1%	7.7%	16.7%	12.5%	0.0%	9.6%
신협 및 마을금고	0	2	0	1	0	3
	0.0%	15.4%	0.0%	4.2%	0.0%	4.1%
정책자금	16	5	4	15	1	41
	57.1%	38.5%	66.7%	62.5%	50.0%	56.2%
비영리기관	9	4	1	5	1	20
	32.1%	30.8%	16.7%	20.8%	50.0%	27.4%
기타	1	1	0	0	0	2
	3.6%	7.7%	0.0%	0.0%	0.0%	2.7%
계	28	13	6	24	2	73
						100.0%

나. 자금조달 환경의 최적화

자금조달 환경의 변화, 사회적금융 · 정책자금의 차별성,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최적화된 자금조달 환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전년 대비 외부 자금조달 환경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이 50.7%였으며, 악화되었다 혹은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9.3%로 나타났다.



〈그림 5〉 전년대비 자금조달 환경변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경우는 20개(54.1%)로 운영자금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금조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6개(44.4%)로 시설 공간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하는 경우에 운영자금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담보의 제공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데에 겪었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시설 공간자금은 담보제공이 용이하여 자금을 융통받기 비교적 쉬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 향후 필요자금의 용도에 따른 조달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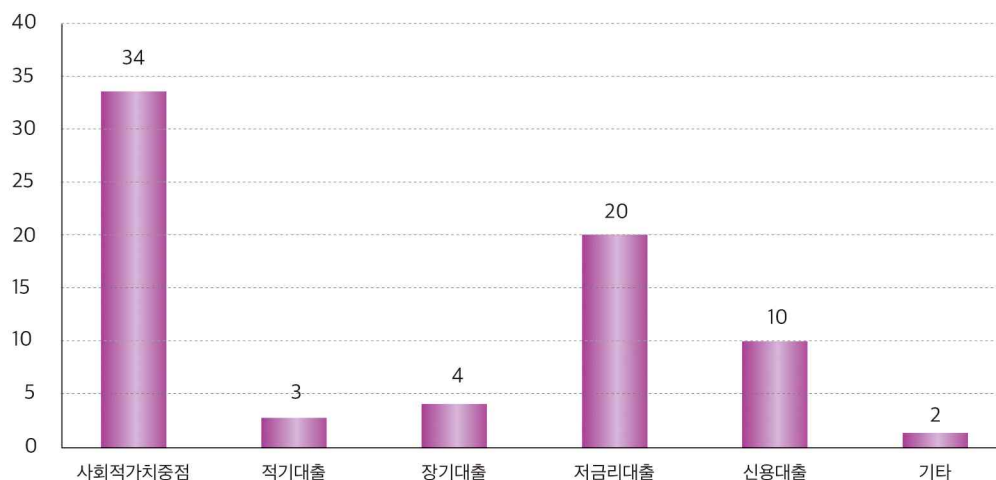
조달환경인식	필요자금의 용도					전체
	운영자금	시설 공간자금	사업개발비	고금리 차입금 대환	기타	
악화되었다	20	9	6	0	2	37
	54.1%	24.3%	16.2%	0.0%	5.4%	100.0%
개선되었다.	8	16	9	1	2	36
	22.2%	44.4%	25.0%	2.8%	5.6%	100.0%
계	28	25	15	1	4	73
						100.0%

자금조달 환경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필요자금의 차이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조달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5천만 원 ~1억 원 사이의 자금수요가 가장 많았으며(14개, 37.8%), 1천만 원 ~ 5천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9개, 24.3%) 조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그룹은 필요자금의 구간이 1억 원 ~ 5억 원 규모가 가장 많았고(16개, 44.4%), 5천만 원 ~ 1억 원이 그 뒤를 이어(9개, 25.0%) 조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그룹의 자금수요가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향후 필요자금의 규모에 따른 조달환경 인식

조달환경인식	필요자금의 규모					전체
	1천만 미만	1천만 ~ 5천만	5천만 ~ 1억	1억 ~ 5억	5억 이상	
악화되었다	1	9	14	8	5	37
	2.7%	24.3%	37.8%	21.6%	13.5%	100.0%
개선되었다.	1	4	9	16	6	36
	2.8%	11.1%	25.0%	44.4%	16.7%	100.0%
계	2	13	23	24	11	73 100.0%

대출 시 ‘사회적금융’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46.6%)했으며 그 뒤로는 낮은 대출금리(27.4%), 신용대출(무담보)(13.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사회적금융이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가져야할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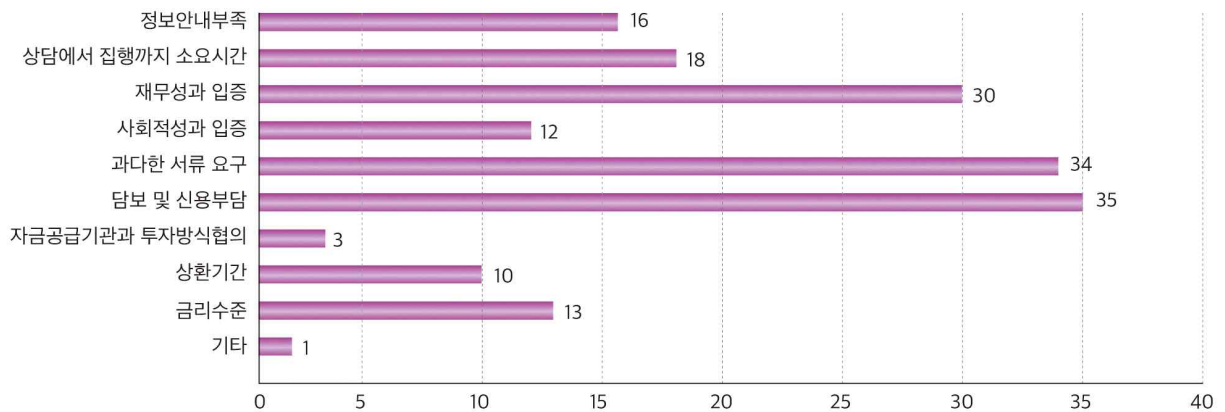
정책자금(모태펀드, 미소금융재단 등)은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이 43.8%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낮은 금리대출(28.8%),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11.0%), 장기대출(9.6%)로 사회적금융에서 바라는 바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7〉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이 일반금융과 비교하여 가져야할 차별성

외부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중복응답)을 묻는 질문에는 담보 및 신용보증부담이 50.0%(35개), 과도한 서류제출 48.6%(34개), 재무성과 입증 42.9%(30개), 상담에서 신청·집행까지의 소요시간이 25.7%(18개), 정보/안내부족 22.9%(16개), 금리수준 18.6%(13개)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리수준에 대한 어려움보다 담보와 서류제출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재무성과가 취약한 점을 어려움으로 꼽는 기업들도 다수 있었다. 이는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성장단계에 진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8〉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

위와 같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서술형으로 물었더니 32명의 응답자가 응답하였고 공통적인 응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자금조달 관련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의견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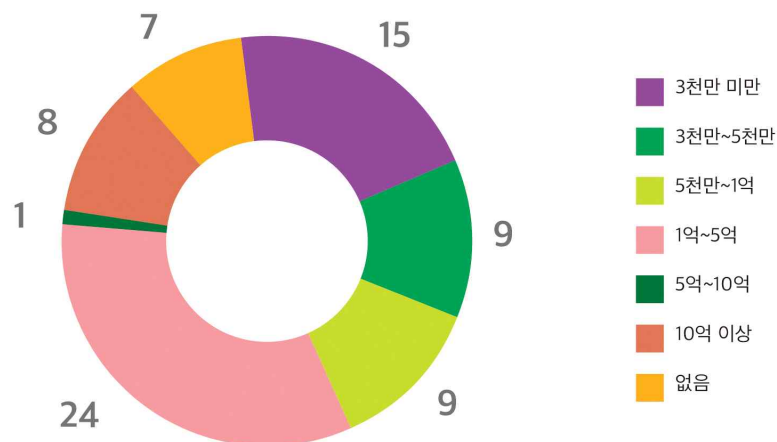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절차	•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 모든 대출 기관에서 대출 가능 • 재무담당 직원의 부족으로 절차관련 교육 필요
융자조건	• 사회적기업 대출 조건 명료화 • 저리 대출 • 장기적 성과 고려한 장기 대출
심사	• 대출 신청 장벽 완화(재무기준 등) • 사회적 가치 반영 심사·가치 기여 정도에 따른 금리혜택
담보	• 신용보증기관의 담보요구 철회 • 사회적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담보로 설정할 수 없는지
기타	• 재무관리 교육 및 전문인력 배치 • 정부 사업 참여 및 공공구매 진행 • 통합적 안내기관 필요

다. 담보·신용·대출관련 분석

대출자금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선호 금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담보·신용·대출에 대한 의견을 분석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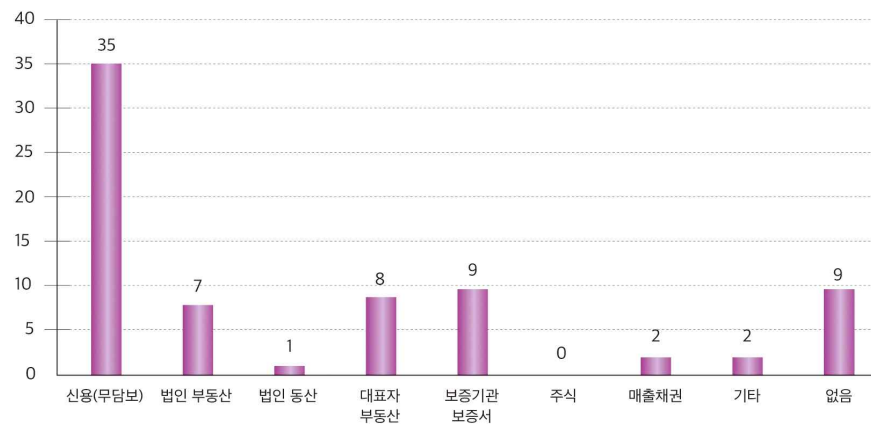
앞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담보 및 신용에 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담보·신용에 관한 조직들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다.

각 조직이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33.3%(24개)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뒤로는 3천만 원 미만이 19.4%(15개), 3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각각 12.5%(9개), 10억 원 이상이 11.1%(8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용(무담보) 47.9%(35개), 보증기관 보증서 12.3%(9개), 대표자 부동산 10.9%(8개), 법인부동산 9.6%(7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대출로 자금조달시 담보조건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과 대출자금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소액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면에 10억 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에는 법인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점은 1억 원 ~ 5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15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정책자금 또는 사회적 금융을 대출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필요자금과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의 관계

대출 자금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								전체
	신용	법인 부동산	법인 동산	대표자부 동산	보증기관 보증서	매출 채권	기타	없음	
3천만 미만	9	0	0	2	2	0	0	1	14
	64.3%	0.0%	0.0%	14.3%	14.3%	0.0%	0.0%	7.1%	100.0%
3천만~ 5천만	4	0	0	2	2	0	1	0	9
	44.4	0.0%	0.0%	22.2%	22.2%	0.0%	11.1%	0.0%	100.0%
5천만~ 1억	6	0	0	2	1	0	0	0	9
	66.7%	0.0%	0.0%	22.2%	11.1%	0.0%	0.0%	0.0%	100.0%
1억~ 5억	15	1	0	2	4	2	0	0	24
	62.5%	4.2%	0.0%	8.3%	16.7%	8.3%	0.0%	0.0%	100.0%
5억~ 10억	0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억 이상	1	6	1	0	0	0	0	0	8
	12.5%	75.0%	12.5%	0.0%	0.0%	0.0%	0.0%	0.0%	100.0%
없음	0	0	0	0	0	0	0	8	8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계	35	7	1	8	9	2	2	9	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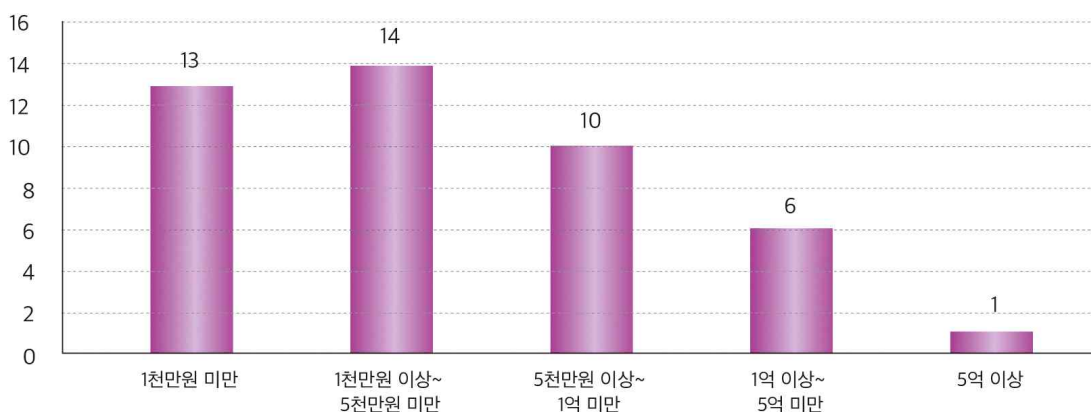
대출시 물적 담보제공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63.3%가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36.7%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물적 담보 제공여력이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물적 담보제공 가능여부

물적 담보제공이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담보액의 가능 구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천만 원~5천만 원 31.8%(14개)로 가장 많았으며, 1천만 원 미만이 29.5%(13개)로, 5천만 원~1억 22.7%(10개)로 그 뒤를 이었다.

담보가능액 범위가 주로 5천만 원 이하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응답한 조직이 많은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일반금융권의 금융서비스를 받는 데에 제약이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포용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12〉 담보 가능한 금액의 범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담보제공 역량을 자금수요와 비교하기 위해 상관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필요자금의 구간이 담보가능액 구간과 일치하는 경우가 전체의 29.5%였으며, 가능담보액 구간보다 필요자금 구

간의 규모가 작은 규모는 1건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담보제공 능력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경우는 29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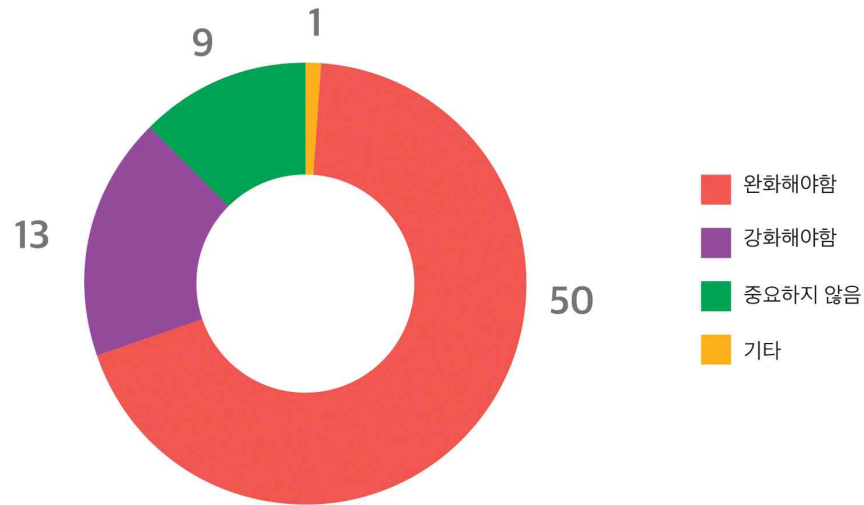
〈표 9〉 필요자금과 담보 제공 역량

필요자금	가능 담보액구간					전체
	1천만 미만	1천만 ~ 5천만	5천만 ~ 1억	1억 ~ 5억	5억 이상	
1천만 미만	2	0	0	0	0	2
	100.0%	0.0%	0.0%	0.0%	0.0%	100.0%
1천만 이상~ 5천만 미만	5	3	0	0	0	8
	62.5%	37.5%	0.0%	0.0%	0.0%	100.0%
5천만 이상~ 1억 미만	4	3	3	1	0	11
	36.4%	27.3%	27.3%	9.0%	0.0%	100.0%
1억 이상~ 5억 미만	1	5	7	4	0	17
	5.9%	29.4%	41.2%	23.5%	0.0%	100.0%
5억이상	1	3	0	1	1	6
	16.7%	50%	0.0%	16.7%	16.6%	100.0%
계	13	14	10	6	1	44
						100.0%

대출 시 인적 보증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기업가에 대한 보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8.5%가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7.8%는 높은 사회적 책임을 필요로 하므로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였다.

이와 같이 담보제공에 부담을 느끼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상당하지만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 공급체, 비영리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기업가들에게 물적, 인적 담보 외 담보를 요구한다면 대신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물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꼽았다. 이 외에도 자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사업의 발전가능성, (사회적기업 경영공시 참여를 통한)경영 투명성 등의 방안을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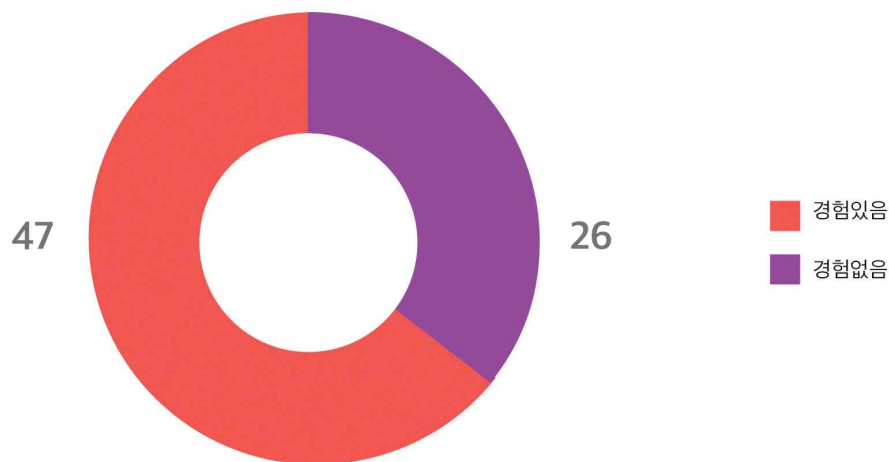


〈그림 13〉 대출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인적보증은 어떠해야하는가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없음 64.4%(47건), 있음 35.6%(26건)로 나타났다.

보증기관보증서를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추가로 담보 또는 조건제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음 80.8%(21건), 있음 19.2%(5건)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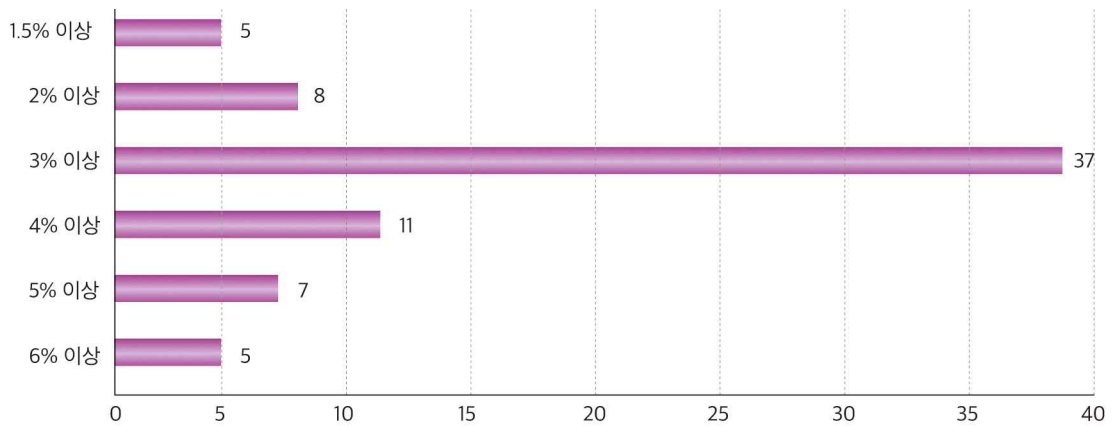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등의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재단, 기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에서 아직 추가 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것은 사회적기업의 자금원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신용보증의 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4〉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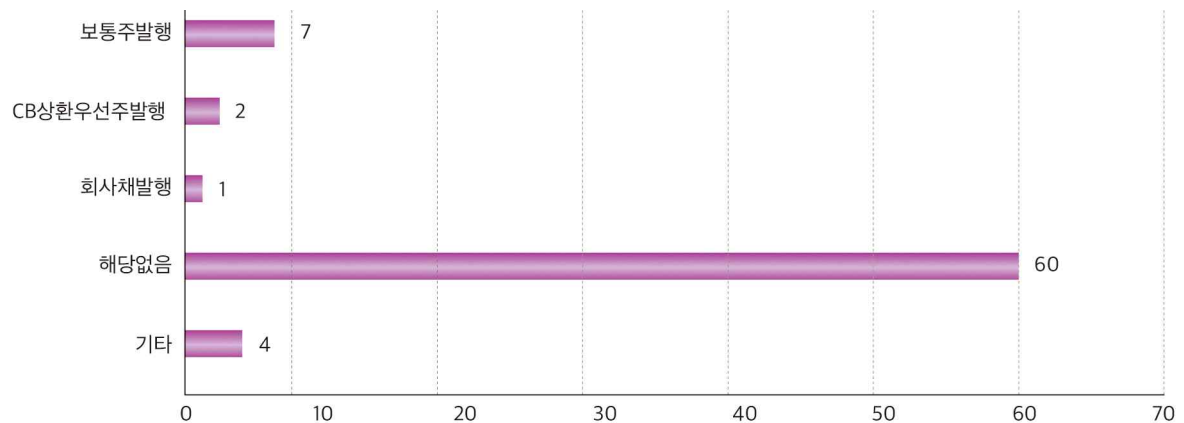
이자상환 부담이 느껴지는 금리구간을 묻는 질문에 3% 이상이 50.7%로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이상 15.1%, 2% 이상 11.0%, 5% 이상 9.6%로 뒤를 이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3%대의 금리를 감내 가능한 한계금리로 느끼는 이유는 중기청 정책자금, 사회투자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금리의 최저수준이 2~3%대인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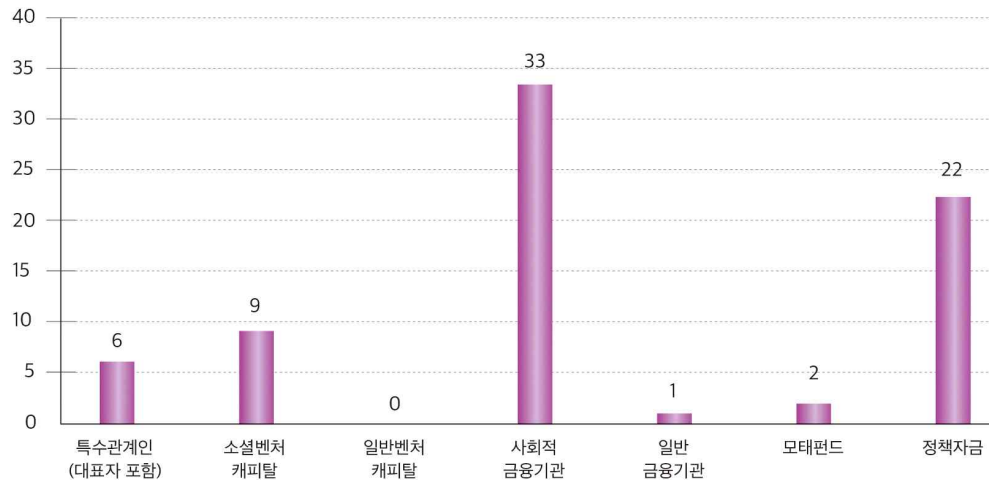
〈그림 15〉 신용대출 시 이자상환 부담이 느껴지는 금리

대출 이외에 경험한 자금조달을 묻는 질문에 해당 없음이 82.2%를 차지했고, 보통주발행 및 기타방법이 각각 9.6%를 차지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조직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지만 이들마저도 주식, 회사채 발행 등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조달 방식을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6〉 대출 이외에 경험한 자금조달 방법

지분투자의 경우 주된 적정 자금조달처에 대한 질문에서는 43.3%가 사회적금융기관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책자금 28.3%, 소셜벤처캐피탈 15%,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 10%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지분투자 시 선호 자금조달처

앞선 분석을 근거로 하였을 때, 사회적기업들은 담보제공이 어려운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추가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기업유형과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기업유형	해결하려는 사회문제					전체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 서비스	환경	예술·문화여행	소셜하우징	
사회적기업	20	5	4	10	2	41
	48.8%	12.2%	9.8%	24.4%	4.9%	100.0%
사회적협동조합	7	4	2	13	0	26
	26.9%	15.4%	7.7%	50.0%	23.1%	100.0%
마을기업	1	4	0	1	0	6
	16.7%	66.7%	0.0%	16.7%	0.0%	100.0%
계	28	13	6	24	2	73
						100.0%

기업유형에 따라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기업은 주로 취약계층 일자리 고용(20개, 48.8%)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로 예술·문화·여행 분야(13개, 50.0%)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가지 유형의 사업유형이 모두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어 물적 담보의 제공이 일반 기업에 비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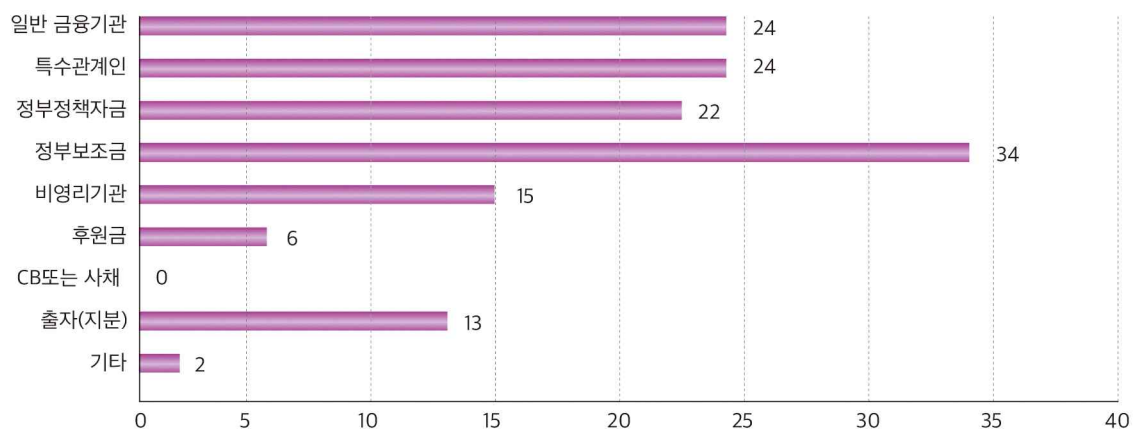
이런 이유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선호하는 자금조달처가 사회적금융기관, 정책자금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위해 무담보 또는 적은 담보로 인내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라. 선호하는 자금유형 분석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유형, 용도, 규모, 적정상환기간 및 금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유형을 조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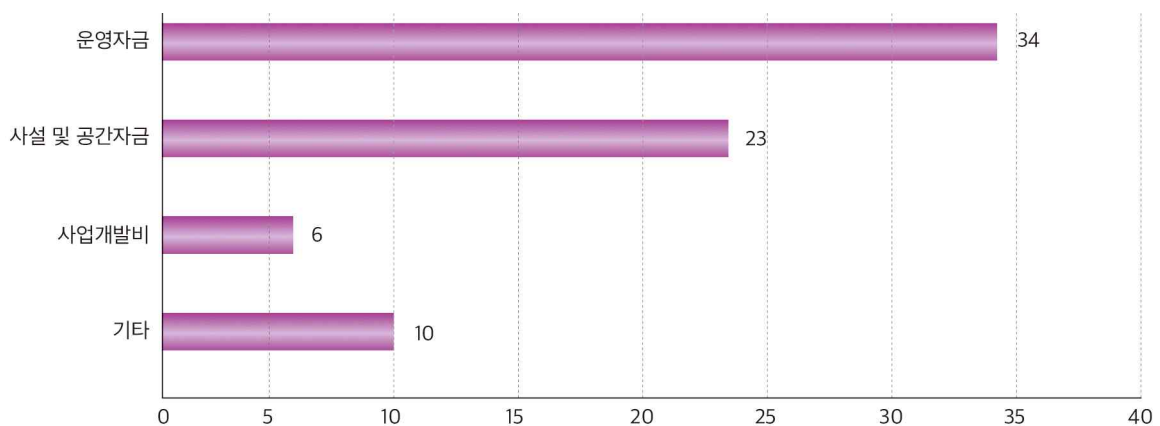
조달규모가 가장 큰 재원조달방식에 대해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더니 정부보조금(46.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금융기관 대출과 특수관계인이 각각 32.9%, 그리고 정부정책자금 및 출자금(15.7%)이 뒤를 이었다.

취약계층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56.2%에 달해 정부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인증사회적기업이 71%에 달하는 것 역시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8〉 주요 자금조달 방법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는 운영자금(인건비 등)이 46.6%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 및 공간자금(부동산 매입, 설비 및 임차료 등) 31.5%, 기타 13.7%, 사업개발비(R&D 비용 등) 8.2%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용자기간을 묻는 질문에 2년 24.6%, 3년, 5년 이상이 각각 21.5%, 4년 이상 18.5%, 4년 18.5%, 1년 13.8%로 나타났다.



〈그림 20〉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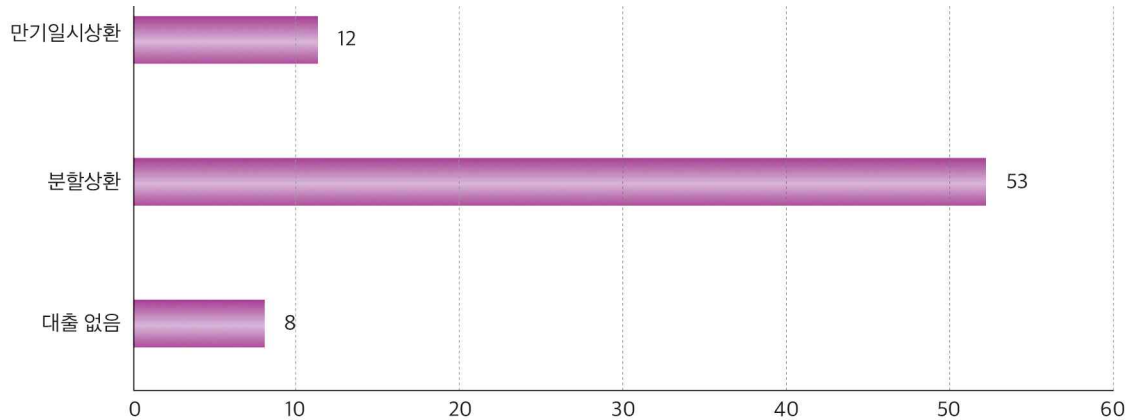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대출기간이 대출금액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대출기간은 대출금액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작은 금액의 대출은 비교적 짧은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두었으며, 대출 금액이 큰 경우에는 4,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이 설정되고 있었다. 설문문항의 한계점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14개가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 대출기간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1〉 대출기간과 대출금액간의 관계

대출금액	대출기간					전체
	1년 미만	2년	3년	4년	5년 이상	
3천만미만	5	3	5	1	0	14
	35.7%	21.4%	35.7%	7.1%	0.0%	100.0%
3천만~5천만	0	4	3	1	1	9
	0.0%	44.4%	33.3%	11.1%	11.1%	100.0%
5천만~1억	1	5	1	0	2	9
	11.1%	55.6%	11.1%	0.0%	22.2%	100.0%
1억~5억	3	1	5	8	7	24
	12.5%	4.2%	20.8%	33.3%	29.2%	100.0%
5억~10억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10억 이상	0	3	0	2	3	8
	0.0%	37.5%	0.0%	25.0%	37.5%	100.0%
계	9	16	14	12	14	44
						100.0%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방식에 대한 질문에 분할상환이 72.6%(53개)이고, 만기일시상환이 16.4%(12개)로 나타났다. 일반 금융권에서도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기업들 역시 담보의 부족, 사업 전망 불투명 등의 이유로 분할상환방식 선택을 권유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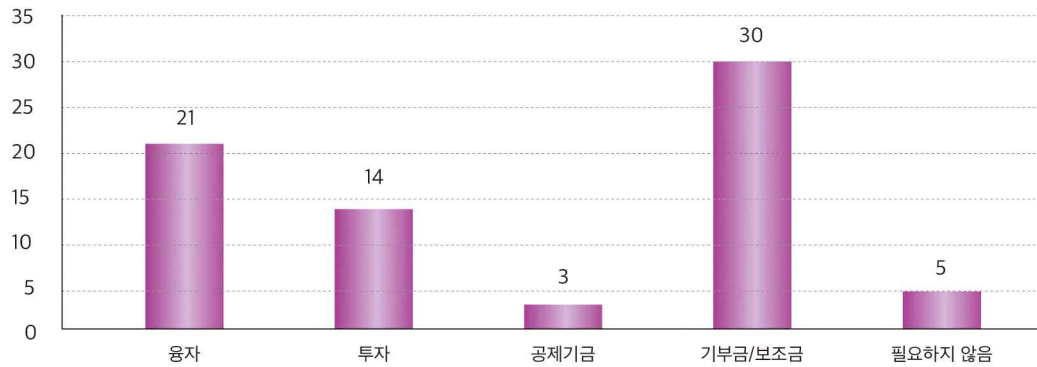
〈그림 21〉 조달자금의 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자금 용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 주로 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하고 있었으며, 시설 및 공간자금으로 활용하려는 그룹은 만기일시 상환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표 12〉 대출 상환방식과 대출용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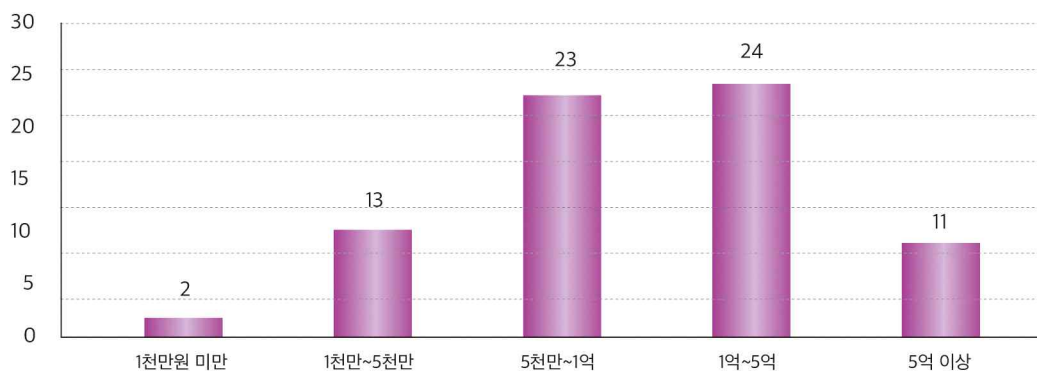
대출 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체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대출 없음	
운영자금	2	32	0	34
	5.9%	94.1%	0.0%	100.0%
시설 및 공간자금	8	14	0	22
	36.4%	63.6%	0.0%	100.0%
사업개발비	1	5	0	6
	16.7%	83.3%	0.0%	100.0%
차입금 대환	0	0	0	
	0.0%	0.0%	0.0%	100.0%
기타	1	2	8	11
	9.1%	18.2%	72.7%	100.0%
계	12	53	8	73
				100.0%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유형은 기부금·보조금 41.1%(30개)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융자 28.8%(21개), 투자(지분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포함) 19.2%(1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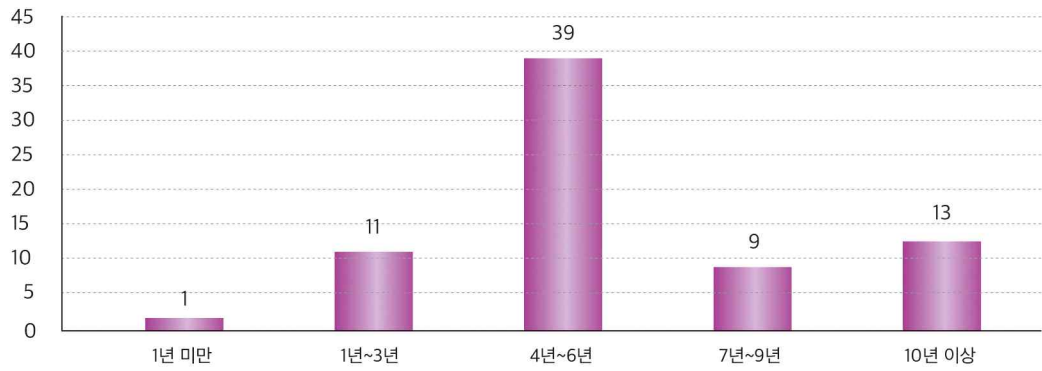
〈그림 22〉 필요자금의 주요 유형

필요자금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 32.9%(24개)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31.5%(23개), 1천만 원~5천만 원 17.8%(13개), 5억 원 이상 15.1%(11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림 23〉 필요자금 규모의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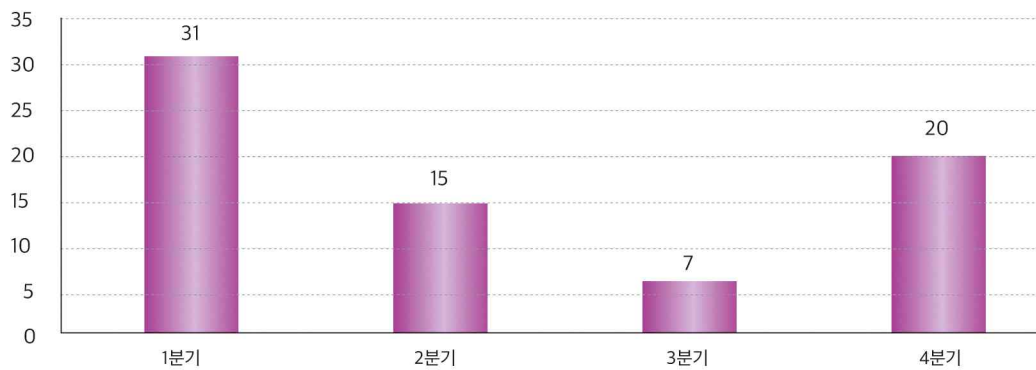
대출 시 필요 자금의 적정 상환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 4~6년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3.4%(39개)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 17.8%(13개), 1년~3년 15.1%(11개)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7년~9년도 12.3%(9개)를 차지했다. 긴 상환기간을 원하는 조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6년의 일반적인 상환기간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4〉 대출 시 걱정 상환기간

연중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42.5%(31개)가 1분기로 가장 많았으며, 4분기 27.4%(20개), 2분기 20.5%(15개), 3분기 9.6%(7개) 순으로 응답했다. 사회적기업이 연말과 연시에 자금 수요가 몰리는 것은 정책자금 공급에 있어서도 함의를 가진다.

각 자금의 결산과 예산 집행이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자금이 원활하게 융통되기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금수요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 자금을 공급할 때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림 25〉 연중 자금 필요시기

■ 경기도 인증 사회적기업 자금실태 설문조사(2016.7)와의 비교

금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수원대학교가 공동으로 경기도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유사한 설문조사(총 245개 중 131개 기업 응답)를 실시하였다. 이를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설문조사와 비교해 보면 조사 대상의 포괄범위가 다소 차이는 나지만, 일부 설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설문조사의 결과 및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¹⁾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주요 자금조달방법(복수응답 허용)은 정부보조금(46.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일반 금융기관 대출(42.1%)과 특수관계인 차입(37.2%)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자금의 누적규모는 1억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1억 원~5억 원인 기업이 35.6%로 가장 많았다.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은 융자(45%)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기부금 및 보조금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자금 조달처는 사회적 금융기관(59.3%)이었으며, 선호하는 대출의 형태는 정책자금대출이 48.2%로 가장 많았고 일반금융기관 대출이 33.3%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적금융 혹은 정책자금이 가져야 할 차별성으로는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대출해야 한다는 것이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이 필요한 적기에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년 대비 자금조달 환경 개선정도가 좋아졌다는 기관이 47%였지만 악화됐다는 기관도 40.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담보 및 신용보증부담, 과도한 서류제출 등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담보비율 완화, 심사기준 완화, 서류의 간소화, 저금리 장기신용대출, 원활한 정보제공, 맞춤형 상환기간 조정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금융 인프라 형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금융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기도판 사회투자기금 조성 운용,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밖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황에 적합한 저금리·장기대출, 신용보증특례보증절차 완화 등 사회적금융 관련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1) 이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김양우·김자혜, 2016.7) 내용(p28-29)을 부분 전재하였음

02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공급기관 FGI

| FGI 설계

가. 대상 선정

자금수요 온라인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금 성과와 애로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정책자금 공급의 개선사항 도출을 목적으로 자금수요기관 및 공급기관 양측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대상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금공급기관(비영리사회적금융기관, 신협, 벤처캐피탈)의 대표급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사회투자의 중간지원조직 협력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던 3개 기관(논골신협, 신나는조합, 크레비스파트너스)과 사회투자기금 용자대상 업체 3개 기관(복지유니온, 아이부키, 바른손협동조합), 타 기금 이용경험 기관(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정책자금 등의 이용이 전무한 기관(삼성떡프린스)의 대표 및 팀장급이 참여하였다.

〈표 13〉 FGI 참여기관 리스트

기관명(가나다순)	소재지	프로그램	피면담자
논골신협	서울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자금	유00이사장
신나는조합	서울시 서대문구	마이크로크레딧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자금	노00팀장
복지유니온	서울시 광진구	복지시설 관련 사회적기업	장00대표
삼성떡프린스	서울시 동작구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 사회적기업	최00원장

크레비스	서울시 성동구	임팩트투자 기획 및 실행, 컨설팅 기관	김00대표
한국사회투자	서울시 중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자금	이00부장
아이부키	서울시 중구	소셜하우징 기업	이00 대표
맑은손 협동조합	서울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안마사 협동조합	정00 대표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 도봉구	발달장애인가용 사회적협동조합	박00 조합원

〈표 14〉 FGI 수행개요

분류	장소	참가기관	날짜
1차 FGI	한국사회투자 세미나실	논골신탁, 신나는조합, 복지유니온, 삼성떡프린스, 크레비스	16. 7. 18
2차 FGI	충무로 레스토랑 24번가	아이부키, 맑은손 협동조합, 산울베리 사회적협동조합	16. 8. 12

나. 질문 가이드라인 작성

공급기관의 경우 각 기관의 승인건수, 승인액, 금리, 지원대상 등 기본적인 융자집행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였다. 또한 각자 운용하고 있는 재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내부 지침의 성숙도를 살피기 위해 부실채권 발생 시 처리기준과 프로세스를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융자심사를 받을 때에 탈락하는 사유와 이의제기가 있을 시 대응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각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금을 융통받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투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을 물어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사회적기업 전용 융자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수요기관에게는 융자신청 시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융자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었는지, 자금을 융통받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 이 다른 기금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설문을 통해 수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했다. 이에 더해 융자경험이 없거나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서울시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이유, 정책자금을 홍보하기 위한 개선책 등을 물어 정책자금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Ⅰ 분석결과

가. 융자 규모와 융자 조건

금리수준은 FGI에 참여한 기관 모두 2~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 한국사회투자자와 신나는 조합이 가장 낮은 수준인 2%의 금리로 수요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심사건수는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자가 총 112건으로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보였으며, 승인건수도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2016년 상반기 기준 심사건수 대비 승인건수를 살펴보면, 논골신탁 53.8%, 신나는조합 52.6%, 한국사회투자 80.4%로 총 심사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승인하고 있는 패턴을 보인다.

누적승인액 규모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사회투자자가 377억 8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나는조합 13억 8천만 원, 논골신탁 7천 5백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5〉 기관별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규모와 융자 조건(2014.1 ~ 2016.6)

기관명	심사건수 (승인건수)	승인액	최대액	금리*	신용도	기간
논골신탁	13(7)	7천5백만	1억	3%	4-5등급	5년
신나는조합	38(20)	13억8천만	1억/3천	2%	제한없음	3년
한국사회투자	112(90)	377억8천2백만	25억/2억	2%	제한없음	5년

나. 채권관리 실태 및 상품 개발

(1) 사회적금융기관

연체 3개월 이상을 부실로 판단하는데 조사 결과 관리 중이나 실제로 발생한 적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 정리가 이루어졌던 채권은 2건이었다. 부실채권 발생 시 사유에 따라 상환유예 또는 상호금액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의심될 경우에 한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신용협동조합

신탁 중앙회의 여신규정을 준수하여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금융권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주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중앙회의 허가를 받아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운용 중이다.

(3) 소셜벤처캐피탈

1억 미만 규모의 투자를 통해 해당기업의 후속투자가 10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벤처 금융의 성장으로 투자에 관한 관심이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융자 손실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손처리를 통해 해당 기업이 정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순기능도 중요하다.

다. 심사 탈락 주요 사유

(1) 탈락사유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탁의 경우 중앙회의 여신규정에 의해 걸러지는 곳이 대다수이고 한국사회투자 역시 사회투자기금의 속성(대손규정 부재 및 안정성 지향)에 의해 재무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한국사회투자의 경우 재무상태 외에도 경영진의 역량,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경우, 사회적성과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탈락사유가 된다.

(2) 심사과정 관련 제안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규모를 키우기 위한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수의 사회적기업은 큰 자금보다 지역 중심의 투융자와 컨설팅, 각종 자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장이 더욱 절실하다.

소규모 대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3~4%대의 기금이 장벽을 낮추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10%대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체계를 갖추는 수직적 금융과 대상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수평적 금융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사회적금융이 앞으로 전체 인프라의 기반을 넓히는 수평적 금융의 필요성을 경시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1) 사회적기업 1

소규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출자하여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경우 융자 시 법인의 허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작성, 융자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작업이 과다하여 단기소액융자 수요가 있을 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2) 사회적기업 2

일반금융권 대출은 사회적 가치를 금융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한 확보하기 어려우며, 당기순이익이 나더라도 고용부의 인건비 지원 등이 결국 영업외수익으로 잡히는 바람에 재무구조가 부실하게 평가되는 한계가 있다.

(3) 협동조합

민간재단의 공모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투자를 확보했으나 현행법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융자방식으로 전환하며 규모가 축소되었다.

위 사례를 경험한 후 사회적경제조직이 조달할 수 있는 각종 자금(정책자금, 보증자금, 일반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4) 사회적협동조합

주로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탁의 도움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 기부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정기 기부자의 수, 기부금액 등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싶다.

(5) 소셜하우징 업체

사회적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이용해 본 결과 사회적금융기관은 일반금융기관과 달리 해당 업계를 이해하고 있는 정도와 이해하려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금융기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작아 지속적인 사업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므로 공익성을 지닌 건설사업과 같은 분야를 위한 대출상품의 개발 혹은 상환의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 사회투자재원의 현재와 미래

(1)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사회투자자금

중진공이 올해 약 1조 4천억 원을 공급하였으나 사회적경제분야로 유입된 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중진공 정책자금 내에 사회적기업 관련 계정과 이를 심사할 기준이 부재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창업 3년 내 기업은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다. 즉, 스타트업

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금융기관이 오히려 정책자금보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중기청 정책자금, 기업재단의 투자프로그램, 지자체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자금이 조성, 제공되어 있으나 기금의 규모나 선정 기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지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사회투자기금의 현재와 발전방향

사회투자기금은 현재 다른 정책자금과 명확하게 차별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요가 있었으나 내년엔 만약 3%대로 금리가 조정된다면 매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초기 기업 혹은 큰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반면 우량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여하는 등의 틀을 깨는 운영방식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사회투자기금은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관점, 금리책정에서의 혁신성, 용자 대상선정의 유연성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03

2013 - 2016년 자금수요조사 결과 종합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사회투자자가 2013년 및 2014년에 수행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자금수요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2015년에도 비슷한 연구가 본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해당연구는 전국의 인증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울 지역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고 자료의 연속성이 미흡해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은 전체 설문지 중 현재까지의 각 자금에 대한 인지도의 흐름과 수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특정 문항을 추출하여 나열하였다. 각 연도별로 설문 문항의 수정이 있었을 경우 비슷한 범위 내에게 수정하여 반영하거나 공란으로 두고 서술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각각의 설문지가 상이하였으며, 2014년 설문에서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을 각각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 연구와의 연속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와 협동조합 데이터를 제외하고 사회적기업 데이터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의 시계열로 이루어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 설문결과를 유사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간주하고 연속적 횡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외부 자금조달 방법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인지도가 증가한 외부 자금조달 방법은 크라우드펀딩,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비영리기관을 이용한 대출이었는데, 인지도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방법은 크라우드펀딩(평균 22.8%)이었다. 특히 크라우드 펀딩은 2016년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P2P 렌딩업체의 증가로 언론 노출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점,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한 스타트업이 진입하기 쉽고 홍보수단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강점 등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의 원년이었던 2013년을 제외하고 사회투자기금의 인지도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비영리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역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인 (재)한국사회투자를 비롯한 신나는 조합 뿐만 아니라, 함께일하는재단과 같은 비영리기관들이 열성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6〉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외부자금조달 인지도(2013 ~ 2016)

인지자금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중소기업정책자금대출	30	25.4%	34	16.5%	33	46.5%
클라우드펀딩	6	5.1%	26	12.6%	36	50.7%
미소금융사회적기업시설 · 운영비대출	24	20.3%	28	13.6%	20	28.2%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0	0.0%	27	13.1%	22	31.0%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신용보증기금)	17	14.4%	21	10.2%	12	16.9%
	18	15.3%	27	13.1%	24	33.8%
엔젤 투자	7	5.9%	15	7.3%	8	11.3%
비영리기관 대출	7	5.9%	13	6.3%	24	33.8%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6	5.1%	13	6.3%	3	4.2%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0	0.0%	0	0.0%	16	7.9%
기타	3	2.6%	2	1.0%	5	7.0%
사회적기업 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118	100.0%	206	100.0%	203	100.0%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비교해보았다. 2016년도 조사에서는 가장 많이 조달하는 유형의 자금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설정하여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인 자금조달방법에는 큰 변화가 없던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주로 정부보조금, 특수관계인차입, 일반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가 있다면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을 주요 자금조달 창구로 꼽는 경우가 약 40%에 달하여 비중이 가장 커졌고, 비영리기관, 투자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곳 또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7〉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2013 ~ 2016)

자금조달방법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 차입	15	34.1%	17	29.3%	24	17.1%
정부보조금	8	18.2%	16	27.7%	34	24.3%
일반 금융기관 대출	12	27.3%	9	15.5%	24	17.1%
정부정책자금(중기청, 지자체 등)	0	0.0%	0	0.0%	22	15.7%
후원금	0	0.0%	4	6.9%	6	4.3%
비영리기관(사회적금융기관) 대출	2	4.5%	5	8.6%	15	10.7%
회사채 발행	0	0.0%	2	3.4%	0	0.0%
투자 유치	2	4.5%	1	1.7%	13	9.3%
기타	5	11.4%	4	6.9%	2	1.4%
합 계	44	100.0%	58	100.0%	140	100.0%

연도별 필요자금 구간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필요자금 형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 형태별로 자금공급 상한 설정 등 심사 절차를 정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의 형태가 각 연도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자금 조달 시 필요한 자금의 구간과 용도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필요자금은 큰 규모의 자금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천만 원 미만 구간의 자금수요는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5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표 18〉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자금 구간 (2013 ~ 2016)

필요자금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천만 원 미만	2	4.5%	3	6.3%	2	2.7%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12	27.3%	12	25.0%	13	17.8%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4	31.8%	13	27.1%	23	31.5%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12	27.3%	13	27.1%	24	32.9%
5억 원 이상	4	9.1%	7	14.6%	11	15.1%
합 계	44	100.0%	48	100.0%	73	100.0%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개발비와 시설자금에 대한 자금수요는 2014년도 들어 높아졌다가 최근 감소한 반면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는 다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개발비 수요의 감소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운영자금의 필요는 사회적기업들의 업력이 쌓이면서 인건비지원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운전자금을 채우기 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9〉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자금 주요용도(2013 ~ 2016)

필요자금용도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운영자금(인건비 등)	20	45.5%	12	25.0%	28	38.4%
시설자금 (설비 및 임차료 등)	12	27.3%	20	41.7%	25	34.2%
사업개발비 (R&D 비용 등)	10	22.6%	15	31.3%	15	20.5%
고금리 차입금 대환	1	2.3%	1	2.2%	1	1.4%
기타	1	2.3%	0	0.0%	4	5.5%
합 계	44	100.0%	48	100.0%	73	100.0%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대출상품의 개발을 위해 부담 가능한 금리와 적정상환기간, 그리고 외부자금 조달 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상품 개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3년 3.25%에서 2016년 사상 최저인 1.2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감내할 수 있는 최고 금리구간 중 가장 많이 응답한 수준은 3%대로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최고 금리 수준을 4% 이상으로 응답한 조직의 비중이 2013년 34%에서 2014년 48%로 늘어났다가 2016년 31.5%로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상당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을 현재의 정책자금 금리 수준보다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정책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20〉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용가능 최고금리 수준(2013 ~ 2016)

적정 금리수준(16년)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5% 이상 ~	0	0.0%	0	0.0%	5	6.8%
2.0% 이상 ~	12	27.3%	7	14.6%	8	11.0%
3.0% 이상 ~	17	38.6%	18	37.5%	37	50.7%
4.0% 이상 ~	15	34.1%	10	20.8%	11	15.1%
5.0% 이상 ~	0	0.0%	13	27.1%	7	9.6%
6.0% 이상 ~	0	0.0%	0	0.0%	5	6.8%
합 계	44	100.0%	48	100.0%	73	100.0%

필요자금의 적정상환 기간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의 조사에 압도적으로 5년 이상을 선택한 많았던 것을 반영하여 2016년 설문에서는 인내자본 개념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연장해보았다. 그 결과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을 원하는 곳 보다는 4~6년 만기의 중기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용가능 적정상환기간(2013 ~ 2016)

적정상환기간(16년)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1년 미만	0	0.0%	1	2.1%	13	17.8%
2년(1~3년)	1	2.3%	1	2.1%	9	12.3%
3년(4~6년)	12	27.3%	12	25.0%	39	53.4%
4년(7~9년)	2	4.5%	6	12.5%	11	15.1%
5년 이상(10년 이상)	29	65.9%	28	58.3%	1	1.4%
합 계	44	100.0%	48	100.0%	73	100.0%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금조달 시 겪는 어려움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3년 간 사회적경제 조직이 겪는 애로점이 계속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담보와 보증에 대해 부담을 갖는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재무적 성과에 대한 입증,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점점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조사 연도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2013 ~ 2016)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	2013		2014		2016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응답수	비율
담보 및 보증부담	33	30.3%	38	25.5%	35	20.3%
서류제출 과다	18	16.5%	26	17.4%	34	19.8%
재무성과 입증	14	12.8%	27	18.1%	30	17.4%
사업가치 입증	17	15.6%	17	11.4%	12	7.0%
상담창구부족		%	15	10.1%	16	9.3%
소요기간	8	7.3%	15	10.1%	18	10.5%
투자방식 및 조건협상 (수익배분 구조 등)	10	9.2%	6	4.0%	3	1.7%
상환기간	5	4.6%	2	1.3%	10	5.8%
금리수준					13	7.6%
기타	4	3.7%	3	2.1%	1	6%
합 계	109	100.0%	149	100.0%	172	100.0%



제 3 장

결론



01 시사점

| 정보접근성 측면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클라우드 펀딩,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및 비영리기관 대출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자금에 대해 비교적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책자금이나 비영리기관 대출 등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설명회나 공시보다는 중간지원기관 혹은 동료기업을 통해 자금공급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자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각 중간지원기관의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고 그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에 관련된 정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금의 인식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회투자기금과 비영리기관 대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사회투자기금의 운영에 관한 함의를 제시한다. 사회투자기금을 비영리기관(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공급함으로써 수혜기관 간 네트워크를 손쉽게 형성하고 유관 정보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각 기관이 사회적금융 상담 창구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금조달 환경 측면

전년 대비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미미한 차이지만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사회적경제 관련 자금의 공급/수요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금조달 시 겪는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결과를 통해 확인했듯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성과평가와 융자신청 시 서류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정책자금이 주로 보아야 할 가치와 맞물려 고민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책자금이 일반금융과 달라야 하는 첫 조건으로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을 꼽은 것을 유의 깊게 보고 이와 관련된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수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 담보·신용·대출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이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1억 원~5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3천만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각 조직 규모 및 매출액의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 단기대출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적 담보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는 의견(63.3%)과 인적 보증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68.9%)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점은 수요기관들이 담보를 제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보의 제공은 정책자금의 공급기관 입장에서든 어려운 과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고민이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 등의 상위기구에서 기금의 철학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줄 정책자금이 되어야 한다면 기금의 회수율보다 이가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향후 사회투자기금의 운영방향 제안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기관에 대한 설문으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특정 정책목적을 지향하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목적이 향후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상품개발의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에도 있기 때문에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선호할 자금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선호할 금융 상품을 구상해보는다면 약 3~4%대의 상품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금리구조와 더불어 비슷한 유형인 중기청 정

책자금의 금리수준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면 사회투자기금은 중기청 정책자금의 차선택 정도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리 외의 조건을 통해 사회투자기금의 성격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는 담보의 제공 범위를 확장하여 각 사회적경제 조직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까지도 담보의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금리 혜택을 주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필요자금 유형이 운전자금과 시설투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분할하여 설계할 필요도 있다. 시설투자를 위한 기금에서는 담보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고 단기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떠안아주는 식의 상호보완적 기금운용 방식의 마련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인내자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기업들의 실제 수요는 10년 이상의 장기자본보다는 4년에서 최대 6년까지의 중기용자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자금수요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특징은 정책자금 의존도가 크며 담보 및 신용보증부담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힘들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담보비율 완화, 심사기준 완화, 서류의 간소화, 저금리 장기신용대출, 원활한 정보제공, 맞춤형 상환기간 조정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시 소재 중간지원기관에게 사회적경제 조직 투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특화된 상품개발 필요, 사회적경제 영역 대출 부실율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 발굴 및 금융전문성을 갖춘 기업가의 등장 필요 등 현재 사회적금융 시장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작년 고용부에서 실시한 전국 인증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 및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연구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최근 들어 서울시 내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투자기금 및 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혹은 사회적금융기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 금융접근성 확보와 사회통합에의 기여

서울시는 현재 상당한 복지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등을 감안할 때 계속 늘어나는 지역의 미래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향후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다. 일회성 ‘주는 복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자금을 선순환하는 ‘투자적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금융의 적극 활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역할은 직접적인 재정 투입보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맞춰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의 확충 운영,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제2, 제3의 SIB사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지역 내 사회적금융 중간지원기관 및 전문 인력 육성, 사회가치 평가제도 마련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를 확충하여 민간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의 보증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민관협력으로 사회적금융이 확산되면 금융접근성 문제가 완화되면서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재원운용의 지속성이 확보되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02 과제 및 한계점

| 과제

가. 조사의 연속성 확보

2016년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될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자금수요 실태를 계속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

2013년도, 2014년도 한국사회투자의 조사결과가 이미 존재하므로 이번 조사와의 연속성을 이어가면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공급 관련 정책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사회적경제 조직 패널 데이터의 필요성

각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요를 매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패널데이터를 만들어 각 계의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통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더욱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자금수요량 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한계점

가. 설문방법에 의한 한계점

온라인 설문조사는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편의가 보장되어 단기간에 많은 케이스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장점이 많지만, 충분한 사례 수가 제한된 기간 안에 모이지 못한 점이 한계로 드러나 전화 및 방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FGI를 위한 참석자를 모집하는데 있어 연구 실행기관인 한국사회투자자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 실시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임팩트투자 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간기관의 유관기관에 대한 FGI를 실시하면 더욱 생생한 현장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나. 설문지 내 금융용어 이해의 한계

설문지의 제작단계에서 각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회계용어에 대한 친밀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설문지를 배포함에 따라 사후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자신이 해당 질문지에 해당하는 답변이 있다 하더라도 용어에 친숙하지 못해 응답을 못하여 답변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중간지원조직들의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부록 1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실태 설문조사지



본 설문지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재)한국사회투자자가 진행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귀사의 자금 조달현황과 자금수요현황, 그리고 귀사의 일반현황 정도입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수요조사 및 정책자금 평가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주요자원, 자원마련 방법, 규모, 필요한 추가 자원의 양, 자금 공급을 위한 필요조건 등의 조사 및 자금수요 현황 분석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조사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이를 유형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 기금과 사회적 금융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오니, 부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어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설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귀사의 재무제표를 준비하시어 응답을 하시는 중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설문 소요시간은 15분 ~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금조달 현황 >

자금조달 현황은 귀사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금조달 집계를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력이 3년 이내인 기업은 창업 이후부터 집계해 주시면 됩니다)

1. 사회적기업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 이용여부 관계 없이 알고 있는 외부 자금조달 방법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책자금

- ☐ 미소금융 소액대출
-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 ☐ 사회적 기업 전용 특별보증 (신용보증재단)
- ☐ 사회적 기업 나눔 보증 (신용보증기금)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 ☐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 (사회투자기금 등)

민간자금

- ☐ 클라우드 펀딩
 - ☐ 소셜벤처 캐피탈
 - ☐ 사회적 기업 연대 공제기금
 - ☐ 비영리기관 대출(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 재단, 신나는조합 등)
 - ☐ 기타 :
2. 귀사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 (기간 : 2013년도 ~ 2016년도 현재)
- ☐ 일반 금융기관 대출(1금융, 2금융, 사금융)
 - ☐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차입
 - ☐ 정부정책자금(중기청, 지자체 등)
 - ☐ 정부보조금(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
 - ☐ 비영리기관 대출(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 재단, 신나는조합 등)
 - ☐ 후원금
 - ☐ CB 또는 회사채 발행
 - ☐ 출자(지분, 상환우선주 등 투자)
 - ☐ 기타 :

2-1. 귀사가 위의 방법들로 조달한 자금의 누적 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기간 : 2013년도 ~ 2016년도 현재)

- ☐ 1억 원 미만
☐ 1억 원 ~ 3억 원
☐ 3억 원 ~ 5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 20억 원
☐ 20억 원 이상

2-2. 귀사의 각 자금 조달방식 유형별 비중을 표시해 주세요. (총합이 100%가 되도록 해당하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선택)

(기간 : 2013년도 ~ 2016 1/4 분기)

종류 \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출자 방식											
대출 방식											
정부보조금, 후원금 등											

3. 귀사는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간 : 2013년도 ~ 2016년도 현재)

- ☐ 3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 10억 미만
☐ 10억 이상

3-1 대출로 자금조달 시 담보조건은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컸던 규모의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 ☐ 신용(무담보)

- ☐ 법인부동산
☐ 법인 동산(기계, 설비, 자동차 등)
☐ 대표자 부동산
☐ 보증기관 보증서
☐ 주식
☐ 매출채권
☐ 기타 :

4.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기간 : 2013년도 ~ 2016년도 현재)

- ☐ 운영자금(인건비 등)
☐ 시설 및 공간자금
 (부동산 매입, 설비 및 임차료 등)
☐ 사업개발비(R&D 비용 등)
☐ 차입금 대환
☐ 기타 :

5.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융자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5년 이상
☐ 4년
☐ 3년
☐ 2년
☐ 1년 미만

6.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방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기타 :

7. 대출 이외에도 보기에 있는 자금조달 방법 중
경험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귀사가 주식회사의 형태일 경우에 응답해주세요)

- ☐ 보통주 발행
- ☐ CB, 상환우선주 발행
- ☐ 회사채발행
- ☐ 해당 없음
- ☐ 기타 :

8. 서울 신용보증 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을 통해 융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 있다 (9번 문항)
- ☐ 없다 (10번 문항)

9. 보증기관 보증서를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추가적
인 담보 또는 조건제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10. 외부 자금 조달 시(모든 자금조달 유형) 느끼
는 어려움을 모두 골라주세요.

(최대 3개 선택 가능합니다.)

- ☐ 정보·안내 부족
- ☐ 상담에서 신청, 집행까지의 소요시간
- ☐ 재무성과 입증
- ☐ 사회적 성과 입증
- ☐ 과도한 서류제출
- ☐ 담보 및 신용보증부담
- ☐ 자금 공급기관과의 투자 방식 협상
(수익배분 구조 등)
- ☐ 상환 기간
- ☐ 금리 수준
- ☐ 기타 :

10-1. 선택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1.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해당되는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 인터넷, 관련매체
- ☐ 동료기업(주변 사회적기업 등)
- ☐ 설명회
- ☐ 중간지원기관
- ☐ 기타 :

12. 전년대비 외부 자금조달 환경은 어떻게 변했
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좋아졌다.
- ☐ 좋아졌다.
- ☐ 악화됐다.
- ☐ 매우 악화됐다.

< 자금수요 >

13. 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유형은 무엇
입니까?

- ☐ 용자
- ☐ 투자(지분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포함)
- ☐ 공제기금
- ☐ 기부금/보조금
- ☐ 필요로 하지 않음(20번 문항으로)
- ☐ 기타 :

14. 필요한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 ☐ 운영자금(인건비 등)
- ☐ 시설 및 공간자금
(부동산 매입, 설비 및 임차료 등)
- ☐ 사업개발비(R&D 비용 등)
- ☐ 고금리 차입금 대환
- ☐ 기타 :

15. 필요자금의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 1천만 원 미만
-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 ☐ 5천만 원 이상 ~ 1억원 미만
-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5억 원 이상

16. 대출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적정 상환기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0년 이상
- ☐ 7년 ~ 9년
- ☐ 4년 ~ 6년
- ☐ 1년 ~ 3년
- ☐ 1년 미만

17. 지분투자의 경우 주된 자금조달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
- ☐ 소셜벤처 캐피탈
- ☐ 일반벤처 캐피탈
- ☐ 사회적 금융 기관
- ☐ 일반금융 기관
- ☐ 모태펀드
- ☐ 정책자금
- ☐ 기타 :

18. 한국은행의 2016년 4월 현재 기준금리는
1.5%,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중소기업 신용대
출 기준)는 지난달 말 기준 3.8% 수준입니다.
귀사의 경우 신용대출 시 이자상환 부담이 느
껴지는 금리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 6% 이상
- ☐ 5% 이상
- ☐ 4% 이상
- ☐ 3% 이상
- ☐ 2% 이상
- ☐ 1.5% 이상

19. 귀사는 대출 시 물적 담보제공이 가능하십니까?

- ☐ 가능하다(23-1번 문항)
- ☐ 부분적으로 가능하다(23-1번 문항)
- ☐ 불가능하다(24번 문항)

20. 대출시 인적 보증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기
업가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 ☐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완화해야 한다.
- ☐ 높은 사회적 책임을 필요하므로 강화해

- 야 한다.
- ☐ 중요하지 않다.
- ☐ 기타 :
21. 귀사가 물적담보 대신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서술하여주세
요. (예 : 귀사의 사회적 가치 등)
22. 귀사에서 연중 자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1분기
- ☐ 2분기
- ☐ 3분기
- ☐ 4분기
23.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대출기관은 어디입니까?
- ☐ 일반 금융기관 대출
- ☐ 신탁 및 마을금고 대출
- ☐ 정책 자금 대출
- ☐ 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출
- ☐ 기타 :
24. 대출 시 ‘사회적 금융’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
교해서 특히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
- ☐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
- ☐ 장기대출
- ☐ 낮은 대출 금리
- ☐ 신용대출(무담보)
- ☐ 기타 :

25. ‘정책 자금’(모태펀드,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한
지원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특히 어떤 측
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
- ☐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
- ☐ 장기대출
- ☐ 낮은 대출금리
- ☐ 신용 대출
- ☐ 기타 :

< 일반현황 >

26. 귀사는 어느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
까?(복수응답 가능)
- ☐ 인증 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
- ☐ 인증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 제공형)
- ☐ 인증 사회적기업(혼합형)
- ☐ 인증 사회적기업(지역사회공헌형)
- ☐ 인증 사회적기업(기타형)
- ☐ 소비자 협동조합
- ☐ 직원 협동조합
- ☐ 사업자 협동조합
-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조합
- ☐ 마을기업
- ☐ 자활기업
- ☐ 기타 :
27. 귀사의 조직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사단법인
- ☐ 재단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상법’에 따른 회사

-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 비영리민간단체
- ☐ 민법상조합
- ☐ 협동조합
- ☐ 기타 :

28. 주요 사업분야는 무엇입니까?

- ☐ 농업, 임업 및 어업
- ☐ 광업
- ☐ 제조업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 건설업
- ☐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원지원 서비스업
- ☐ 교육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 활동
- ☐ 기타 :

29. 귀사가 사업운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혹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 ☐ 청년,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돌봄, 교육 협동조합 방식 도입 등)
- ☐ 환경 보호 및 보존(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
- ☐ 지속가능하며 자발적인 예술·문화 사업
- ☐ 소셜하우징 사업(청년 및 저소득 서민주택 보금,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하우징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 ☐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 ☐ 기타 :

30. 귀사가 목표로 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은 누구입니까?

- ☐ 저소득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 한부모 가족,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 ☐ 학업중단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 이민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 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경증장애인
- ☐ 중증장애인, 갱생보호 대상자, 노숙인, 약물·알콜·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 ☐ 기타 :

31. 신고된 주요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32.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33. 고용중인 근로자 수는 몇 명 입니까?

- ☐ 5인 이하
- ☐ 6인 ~ 10인
- ☐ 11인 ~ 15인
- ☐ 16인 ~ 20인
- ☐ 21인 이상

34. 귀사의 자산 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 ☐ 5천만 원 미만
- ☐ 5천만 원 ~ 1억 원
- ☐ 1억 원 ~ 2억 원
- ☐ 2억 원 ~ 5억 원
- ☐ 5억 원 ~ 10억 원
- ☐ 10억 원 이상

35. 귀사의 자기 자본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 ☐ 자본잠식(-)
- ☐ 5천만 원 미만
- ☐ 5천만 원 ~ 1억 원
- ☐ 1억 원 ~ 2억 원
- ☐ 2억 원 ~ 5억 원
- ☐ 5억 원 ~ 10억 원
- ☐ 10억 원 이상

36. 귀사의 매출액은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 ☐ 5천만 원 미만
- ☐ 5천만 원 ~ 1억 원
- ☐ 1억 원 ~ 2억 원
- ☐ 2억 원 ~ 5억 원
- ☐ 5억 원 ~ 10억 원
- ☐ 10억 원 이상

37. 응답하신 분의 회사 내 직위를 알려주세요.

- ☐ 대표자
- ☐ 이사
- ☐ 중간관리자
- ☐ 실무자/직원
- ☐ 기타 :

38. 귀사의 상호명을 적어주세요(더욱 완성도 있는 표집을 위함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실태 조사결과



1. 사회적기업 자금조달과 관련하여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출 이외에 이용여부 관계없이 알고 있는 외부 자금조달 방법을 모두 골라주세요(중복응답)

	응답수	비율(%)	케이스 퍼센트(%)
미소금융 소액대출	20	9.9	28.2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33	16.3	46.5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신용보증재단)	24	11.8	33.8
사회적기업 나눔보증(신용보증기금)	12	5.9	16.9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3	1.5	4.2
지방자치단체 정책자금(사회투자기금 등)	22	10.8	31.0
클라우드 펀딩	36	17.7	50.7
소셜벤처캐피탈	8	3.9	11.3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	16	7.9	22.5
비영리기관 대출(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신나는 조합 등)	24	11.8	33.8
기타	5	2.5	7.0
합계	203	100.0	285.9

2. 귀사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을 두 가지만 골라주세요.(중복응답)

	응답수	비율(%)	케이스 퍼센트(%)
일반 금융기관 대출(1금융, 2금융, 사금융)	24	17.1	32.9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차입	24	17.1	32.9
정부정책자금(중기청, 지자체 등)	22	15.7	30.1
정부보조금(사업개발비, 인건비 지원 등)	34	24.3	46.6
비영리기관 대출 (사회연대은행, 열매나눔재단, 신나는조합 등)	15	10.7	20.5
후원금	6	4.3	8.2
CB 또는 회사채 발행	0	0	0
출자(지분, 상환우선주 등 투자)	13	9.3	17.8
기타	2	1.4	2.7
합계	140	100.0	191.8

2-1. 귀사가 위의 방법들로 조달한 자금의 누적 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응답수	비율(%)
1억 원 미만	21	28.8
1억 원 ~ 3억 원	24	32.9
3억 원 ~ 5억 원	12	16.4
5억 원 ~ 10억 원	6	8.2
10억 원 ~ 20억 원	8	11.0
20억 원 이상	2	2.7
합계	73	100.0

2-2. 귀사의 각 자금 조달방식 유형별 비중을 표시해 주세요.

1) 출자방식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선택해주세요)

	응답수	비율(%)
0	5	6.8
10	11	15.1
20	11	15.1
30	3	4.1
40	5	6.8
50	3	4.1
60	1	1.4
70	7	9.6
80	3	4.1
90	1	1.4
100	2	2.7
합계	52	71.2

2) 대출방식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선택해주세요)

	응답수	비율(%)
0	5	6.8
10	8	11.0
20	10	13.7
30	6	8.2
40	2	2.7
50	12	16.4
60	3	4.1
70	3	4.1
80	6	8.2
90	7	9.6
100	4	5.5
합계	66	90.4

3) 정부보조금, 후원금 등 (합계가 100%가 되도록 선택해주세요)

	응답수	비율(%)
0	0	0
10	20	27.4
20	9	12.3
30	4	5.5
40	3	4.1
50	9	12.3
60	1	1.4
70	2	2.7
80	4	5.5
90	6	8.2
100	3	4.1
합계	61	83.6

3. 귀사는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기간 : 2013년도 ~ 2016년도 현재)

	응답수	비율(%)
3천만 원 미만	14	19.2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9	12.3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9	12.3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4	32.9
5억 원 이상 ~ 10억 미만	1	1.4
10억 이상	8	11.0
합계	65	89.1

3-1. 대출로 자금조달시 담보조건은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컸던 규모의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세요.

	응답수	비율(%)
신용 (무담보)	35	47.9
법인부동산	7	9.6
법인 동산 (기계, 설비, 자동차 등)	1	1.4
대표자 부동산	8	11.0
보증기관 보증서	9	12.3
주식	2	2.7
매출채권 (외사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으로 발행한 채권)	2	2.7
기타	7	9.6
합계	71	97.3

4.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운영자금 (인건비 등)	34	46.6
시설 및 공간자금 (부동산 매입, 설비 및 임차료 등)	23	31.5
사업개발비 (R&D 비용 등)	6	8.2
차입금 대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지불하기 위한 용자)	0	0
기타	10	13.7
합계	73	100.0

5.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평균 융자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수	비율(%)
5년 이상	9	12.3
4년	16	21.9
3년	14	19.2
2년	12	16.4
1년 미만	14	19.2
합계	65	89.0

6. 귀사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상환 방식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만기일시상환	12	16.4
분할상환	53	72.6
기타	8	11.0
합계	73	100.0

7. 대출 이외에도 보기에 있는 자금조달 방법 중 경험이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주세요.

(귀사가 주식회사의 형태일 경우에 응답해 주세요.)

	응답수	비율(%)
보통주 발행	7	9.5
CB, 상환우선주 발행	2	2.7
회사채 발행	1	1.4
해당 없음	60	81.1
기타	4	5.4
합계	74	100.0

8. 서울 신용보증 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융자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수	비율(%)
없다	47	64.4
있다	26	35.6
합계	73	100.0

9. 보증기관 보증서를 은행창구에 제출한 후 추가적인 담보 또는 조건제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응답수	비율(%)
없다	21	28.8
있다	5	6.8
합계	26	35.6

10. 외부 자금 조달 시(모든 자금조달 유형) 느끼는 어려움을 모두 골라주세요. (최대 3개 선택 가능합니다.)

	응답수	비율(%)	케이스 퍼센트(%)
정보 · 안내부족	16	9.3	22.9
상담에서 신청, 집행까지의 소요시간	18	10.5	25.7
재무성과 입증	30	17.4	42.9
사회적 성과 입증	12	7.0	17.1
과다한 서류제출	34	19.8	48.6
담보 및 신용보증부담	35	20.3	50.0
자금공급기관과의 투자 방식 협상 (수익배분 구조 등)	3	1.7	4.3
상환기간	10	5.8	14.3
금리수준	13	7.6	18.6
기타	1	6	1.4
합계	172	100.0	245.7

10-1. (서술형) 선택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11.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해당되는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주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인터넷, 관련매체	23	31.5
동료 기업 (주변 사회적 기업 등)	19	26.0
설명회	4	5.5
중간지원기관	25	34.2
기타	2	2.7
합계	73	100.0

12. 전년 대비 외부 자금조달 환경은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매우 악화됐다	1	1.4
악화됐다	36	49.3
좋아졌다	35	47.9
매우 좋아졌다	1	1.4
합계	73	100.0

17. 귀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융자	21	28.8
투자 (지분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포함)	14	19.2
공제기금	3	4.1
기부금 / 보조금	30	41.1
필요로 하지 않음 (20번 문항으로)	5	6.8
기타	0	0
합계	73	100.0

18. 필요한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운영자금 (인건비 등)	28	38.4
시설 및 공간자금 (부동산 매입, 설비 및 임차료 등)	25	34.2
사업개발비 (R&D 비용 등)	15	20.5
고금리 차입금 대환	1	1.4
기타	4	5.5
합계	73	100.0

19. 필요자금의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수	비율(%)
1천만 원 미만	2	2.7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13	17.8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23	31.5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24	32.9
5억 원 이상	11	15.1
합계	73	100.0

20. 대출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적정 상환기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1년 미만	1	1.4
1년 ~ 3년	11	15.1
4년 ~ 6년	39	53.4
7년 ~ 9년	9	12.3
10년 이상	13	17.8
합계	73	100.0

21. 지분투자의 경우 주된 자금조달처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특수관계인 (대표자 포함)	6	8.2
소셜벤처 캐피탈	9	12.3
일반벤처 캐피탈	0	0
사회적 금융 기관	33	45.2
일반금융 기관	1	1.4
모태펀드	2	2.7
정책자금	22	30.1
기타	0	0
합계	73	100.0

22. 한국은행의 2016년 4월 현재 기준 금리는 1.5%,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중소기업 신용대출 기준)는 지난달 말 기준 3.8% 수준입니다. 귀사의 경우 신용대출 시 이자상환 부담이 느껴지는 금리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수	비율(%)
1.5% 이상	5	6.8
2% 이상	8	11.0
3% 이상	37	50.7
4% 이상	11	15.1
5% 이상	7	9.6
6% 이상	5	6.8
합계	73	100.0

23. 귀사는 대출 시 물적 담보제공이 가능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가능하다 (23-1번 문항)	9	12.3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23-1번 문항)	18	24.7
불가능하다 (24번 문항)	46	63.0
합계	73	100.0

23-1. 가능한 담보액의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응답수	비율(%)
무응답	29	39.7
1천만 원 미만	13	17.8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14	19.2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10	13.7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6	8.2
5억 원 이상	1	1.4
합계	73	100.0

24. 대출 시 인적 보증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가에 대한 보증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완화해야 한다.	50	68.5
높은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므로 강화해야 한다.	13	17.8
중요하지 않다.	9	12.3
기타	1	1.4
합계	73	100.0

25. (서술형) 귀사가 물적 담보 대신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 귀사의 사회적 가치 등)

26. 귀사에서 연중 자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응답수	비율(%)
1분기	31	42.5
2분기	15	20.5
3분기	7	9.6
4분기	20	27.4
합계	73	100.0

27. 귀사가 가장 선호하는 대출기관은 어디입니까?

	응답수	비율(%)
일반 금융기관 대출	7	9.6
신협 및 마을금고 대출	3	4.1
정책 자금 대출	41	56.2
비영리기관을 통한 대출	20	27.4
기타	2	2.7
합계	73	100.0

28. 대출 시 ‘사회적 금융’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특히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응답수	비율(%)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	34	46.6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	3	4.1
장기대출	4	5.5
낮은 대출금리	20	27.4
신용대출 (무담보)	10	13.7
기타	2	2.7
합계	73	100.0

29. ‘정책 자금’ (모태펀드,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한 지원이 일반 금융기관과 비교해서 특히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응답수	비율(%)
사회적 가치 중점 대출	32	43.8
적기대출, 신속한 대출절차	8	11.0
장기대출	7	9.6
낮은 대출금리	21	28.8
신용대출	5	6.8
기타	0	0
합계	73	100.0

30. 귀사는 어느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까?

	응답수	비율(%)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 제공형)	25	34.3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 서비스 제공형)	4	5.5
인증 사회적 기업 (혼합형)	6	8.2
인증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공헌형)	1	1.4
인증 사회적 기업 (기타형)	16	21.9
소비자 협동조합	2	2.7
직원 협동조합	0	.0
사업자 협동조합	1	1.4
다중 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2	2.7
사회적 협동조합	8	11.0
마을 기업	6	8.2
자활 기업	0	.0
기타	2	2.7
합계	73	100.0

31. 귀사의 조직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응답수	비율(%)
사단법인	4	5.5
재단법인	1	1.4
사회복지법인	2	2.7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0	0
‘상법’에 따른 회사	41	56.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1	1.4
비영리 민간단체	5	6.8
민법상 조합	0	0
협동조합	19	26.0
기타	0	0
합계	73	100.0

32. 주요 사업분야는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농업, 임업 및 어업	2	2.7
광업	0	0
제조업	11	15.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	2.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4	5.5
건설업	2	2.7
도매 및 소매업	10	13.7
운수업	0	0
숙박 및 음식점업	4	5.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4.1
금융 및 보험업	1	1.4
부동산 및 임대업	1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4.1
교육 서비스업	8	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9.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16.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2.7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 활동	0	0
기타	0	0
합계	73	100.0

33. 귀사가 사업운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혹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응답수	비율(%)
청년, 노인,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28	38.4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제공 (돌봄, 교육, 협동조합 방식 도입 등)	13	17.8
환경 보호 및 보존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업사이클링 등)	6	8.2
지속가능하며 자발적인 예술·문화 사업	16	21.9
소셜하우징 사업 (청년 및 저소득 서민주택 보금,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하우징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2	2.7
공정무역 및 공정여행	8	11.0
기타	0	0
합계	73	100.0

34. 귀사가 목표로 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은 누구입니까?

	응답수	비율(%)
소득자,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청년, 한부모 가족,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40	54.8
학업중단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결혼이민자,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 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경증 장애인	6	8.2
중증 장애인, 갱생보호 대상자, 노숙인, 약물·알콜·도박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17	23.3
기타	10	13.7
합계	73	100.0

35. 신고된 주요 사업장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응답수	비율(%)
강남구	4	5.5
강동구	2	2.7
강북구	0	0
강서구	1	1.4
관악구	3	4.1
광진구	4	5.5
구로구	0	0
금천구	5	6.8
노원구	1	1.4
도봉구	3	4.1
동대문구	0	0
동작구	3	4.1
마포구	8	11.0
서대문구	0	0
서초구	2	2.7
성동구	6	8.2
성북구	5	6.8
송파구	2	2.7
양천구	1	1.4
영등포구	4	5.5
용산구	5	6.8

은평구	7	9.6
종로구	4	5.5
중구	3	4.1
중랑구	0	0
합계	73	100.0

36. 설립연도는 언제입니까?

	응답수	비율(%)
2007년 이전	14	19.2
2008년 ~ 2009년	16	21.9
2010년 ~ 2011년	12	16.4
2012년 ~ 2013년	21	28.8
2014년 ~ 2015년	10	13.7
합계	73	100.0

37. 고용중인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응답수	비율(%)
5인 이하	18	24.7
6인 ~ 10인	17	23.3
11인 ~ 15인	11	15.1
16인 ~ 20인	7	9.6
21인 이상	20	27.4
합계	73	100.0

38. 귀사의 자산 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응답수	비율(%)
5천만 원 미만	12	16.4
5천만 원 ~ 1억 원	6	8.2
1억 원 ~ 2억 원	18	24.7
2억 원 ~ 5억 원	20	27.4
5억 원 ~ 10억 원	9	12.3
10억 원 이상	8	11.0
합계	73	100.0

39. 귀사의 자기 자본규모는 어느 구간에 속합니까?

	응답수	비율(%)
자본잠식 (-)	14	19.2
5천만 원 미만	24	32.9
5천만 원 ~ 1억 원	9	12.3
1억 원 ~ 2억 원	9	12.3
2억 원 ~ 5억 원	9	12.3
5억 원 ~ 10억 원	7	9.6
10억 원 이상	1	1.4
합계	73	100.0

40. 귀사의 매출액은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응답수	비율(%)
5천만 원 미만	5	6.8
5천만 원 ~ 1억 원	6	8.2
1억 원 ~ 2억 원	11	15.1
2억 원 ~ 5억 원	10	13.7
5억 원 ~ 10억 원	19	26.0
10억 원 이상	22	30.1
합계	73	100.0

41. 응답하신 분의 회사 내 직위를 알려주세요.

	응답수	비율(%)
대표자	29	39.7
이사	10	13.7
중간관리자	18	24.7
실무자 · 직원	14	19.2
기타	2	2.7
합계	73	100.0



부록 3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공급·수요 관련 FGI 면담지



1.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사업 실적(공급자 only)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분기
심사건수				
승인건수				
승인액				
전담직원수				

2.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사업 개요(공급자 only)

지원대상		최대액	억
융자승인프로세스		소요기간	일
주요 신청서류			
심사기준 비중	사회적 가치 : %	재무건전성 : %	
조건	금리 : %	보증요율 : %	기간 : 년
		담보 :	신용도 :

3.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사업 부실채권 현황 및 관리 규정(공급자 only)

부실채권 건수		부실채권 금액	억	부실률	%
부실채권 기준			총당금 설정		
부실채권 발생시 처리 기준과 프로세스					
손실확정(상각)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					

4. 사회적경제 조직 융자사업 개선 관련 질문(공급자/수요자)

기업들의 당기관 사업에 대한 정보 입수 방법	기관홈페이지, 지인, 융자기경험 주변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기관 등
융자심의 탈락 업체들의 주요 탈락 사유	사회적 가치 불명확, 경영진 자질 부족, 재무적 불안정성, 사업성 불투명, 서류 미비, 담보제공 부족, 업체 사업경험 부족 등
융자심의 탈락업체들의 심의 탈락에 대한 주된 이의제기	사전 안내된 정보의 부족, 심사기준에 대한 파악 오류, 지나친 재무 건전성 기준, 담보 부족 불가피, 심사역의 심도 깊은 사업 및 사회적 가치 분석 부족, 탈락 사유에 대한 피드백 부족 등
(융자사업부진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내부 심사역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신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회적, 재무적 수준 미달, 지나친 내부 심사 기준(재무적, 사회적), 담보제공 부족, 경영진의 자질 부족, 사업성 부족(시장 레드오션,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 부족, 사업 및 마케팅 전략 미흡 등
당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확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노력	사업 설명회, 업체 방문, 업체 정보 수집 및 리뷰, 타 중간지원기관과의 사업 협력 등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투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개선책	



부록 4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 공급·수요 관련 FGI 녹취록



1) 용자규모와 용자조건(서면응답내용)

(1) 신나는조합

용자사업 개요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최대액	1억 / 3천	
	용자승인프로세스	서류심사-현장실사-면접심사			소요기간	30일 / 1주일	
	주요 신청서류	□ 신청기업 1. 대출신청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4.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중(사본) 1부 5. 정관(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6. 공인회계사(세무사)로부터 확인 받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계정 별 원장 포함)(사본) 각 1부 7. 201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원본) 1부 8.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원본) 각 1부 9. 기업소개자료 1부 □ 대표자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2. 대표자 신용보고서 1부[신용평가기관 www.allcredit.co.kr] 3.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심사기준 비중	사회적 가치 : 60 %			재무건전성 : 40 %		
	조건	금리 : 2%	보증요율 : 0%	기간 : 3년	담보 : 가능시 설정	신용도 : 참고사항	
부실채권현 황 및 관리규정	부실채권 건수	0	부실채권 금액	0억	부실률	0%	
	부실채권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충당금 설정	없음	
	부실채권 발생시 처리 기준과 프로세스	연체사유에 따라 상환 유예나 금액조정, 도덕적해이 판단 시 최고장 발송 및 법적조치					
	손실확정(상각)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	RM과 사업담당자 1인의 현장실사 후 판단되는 내용에 의거하여, 특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손상각					
용자심의 주요 탈락사유	재무기준(부채비율-500%,영업이익율-50%,자본총계0원 이상)에 따라 1차 선별되며, 그 외에도 취약한 재무비율, 손익구조와 조직의 안정성, 사업성 등에서 탈락함 형태만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도 큰 탈락의 사유가 됨						
사업 홍보	- 홈페이지, 뉴스레터,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 - 연평균 60~80회 교육실시를 통한 안내 - 경영고시(연1회) 현장과 가장 밀착되어있기 때문에 용자사업 안내 및 이해가 용이						

	-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위한 자금조달 상시 상담을 통한 기본컨설팅 재무컨설팅 - 사회적금융활성화네트워크 운영 - 지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들의 사회적금융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융자사업 활성화 개선책	- 사회적경제영역에 특화된 상품개발 필요 - 사회적경제영역 대출 부실율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경제영역에 특화된 사회적 가치를 더욱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을 양성하며 사업운영에 있어 투융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재량을 주어, 다양한 상품을 기획 운영
사투기금 개선방향 제언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금리(2%)의 장점 이외에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예 혹은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 상품을 다양화하여, 스타트업 혹은 소규모기업에는 금리를 낮게 책정하고, 조금 더 우량한 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겠음 중간지원기관이 목표로 하는 지원대상층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형식으로 기금을 분배

(2) 논골신탁

융자사업 개요	지원대상	사회적경제 기업			최대액	1억
	융자승인프로세스	신탁여신업무방법서			소요기간	5일
	주요 신청서류	업무방법서 상의 근거서류				
	심사기준 비중	사회적 가치 : 50%		재무건전성 : 50%		
	조건	금리 : 3 %	보증요율 : %	기간 : 5년	담보 : 0	신용도 : 4-5등급
부실채권현 황 및 관리규정	부실채권 건수	0	부실채권 금액	0 억	부실률	0 %
	부실채권 기준	연체 3개월 이상		총당금 설정	정상/1%(75만 원)	
	부실채권 발생시 처리 기준과 프로세스	신탁여신업무방법서 상의 업무처리기준에 근거				
	손실확정(상각)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	신탁여신업무방법서 상의 업무처리기준에 근거				
융자심의 주요 탈락사유	신탁 여신규정에 부합(서류 미비, 재무적 불안정성 등) 신탁의 경우 여신규정이 일반은행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정해진 여신 규정을 어길 수 없음					
사업 홍보	홈페이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					
융자사업 활성화 개선책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 추가 발굴 자발성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는 단체 필요 지역사회 내에서 자금을 모아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사투기금 개선방향 제언	대손율 0%를 유지하는 노력을 줄여야 함					

(3) 한국사회투자

용자사업 개요	지원대상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최대액	25억/2억
	용자승인프로 세스		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여신심 의위원회-약정			소요기간	전월말 신청 후 익월 27일 경 승인
	주요 신청서류		용자신청서 참고				
	심사기준 비중		사회적 가치 : 30%			재무건전성 : 40 %	
	조건	금리 : 2%	보증요율 : %	기간 : 5년	담보 : 가능시 설정	신용도 : 제한 없음	
부실채권현 황 및 관리규정	부실채권 건수	1	부실채권 금액	0.18억	부실률	0.06%	
	부실채권 기준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총당금 설정	없음	
	부실채권 발생시 처리 기준과 프로세스			원리금 납부 3개월 연체 시 연체관리 법적절차 착수			
	손실확정(상각)에 대한 기준과 프로세스			압류 등 법적절차를 통해 환수 불가능한 경우 손실 확정			
용자심의 주요 탈락사유	- 사회적 가치 불명확, 경영진 자질 부족, 재무적 불안정성, 사업성 불투명, - 서류 미비, 담보제공 부족, 업체 사업경험 부족 등						
사업 홍보	사업설명회, 업체방문, 업체정보 수집 및 리뷰 유련 기관의 협조요청을 통한 뉴스레터나 웹사이트 노출 우수 사회적경제 조직을 선정해 용자사업 홍보물 발송 기획 중						
용자사업 활성화 개선책							
사투기금 개선방향 제언	- 서울시의 대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이 시급						

2) 채권관리 실태 및 상품 개발

신나는조합

연체 3개월 이상을 부실로 보고 관리하는 중이다. 관리한 채권 중 문제가 있어 정리를 했던 채권이 두 건이 있었으며 한 채권의 경우 해당 기업의 핵심기술을 가진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인력충원까지의 공백을 위해 유예를 해드린 적이 있다.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 사유에 따라서 상환을 유예시켜주거나 금액 조정에 들어가는 데 3개월 연차 발생 이전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고 만약 해당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염려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위탁사업을 통해 채용자하는 90%의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의 자산의 경우 특별심의위원회의 있어 면책을 거쳐 정말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경우 상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약 17년 동안 사업을 해왔고 복지부나 서울시 각종 지자체 등 다양한 정책 자금으로 재원을 확보해둔 곳이 있으나 아직까지 한 번도 대손처리 규정이 만들어진 사업이 없었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130억 원 규모의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민간위탁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23개 수행기관이 더 이상 해당 채권을 관리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채권을 중앙자활센터로 이관중이다.

논골신탁

현재 한국사회투자자와 계약을 맺고(2억 원) 성동구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7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으며, 대부분 신용대출로 진행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신탁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권과 비슷한 신탁의 여신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상담사례는 많았지만 대부분 여신규정에 걸려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신탁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건의를 한 결과 신탁이 올해 들어 상생협력대출이라는 상품을 내놓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만 지원되는 상품이며 계획은 무보증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1억 5천만 한도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1억 5천만 원 한도 상품은 금감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 우리(논골신탁)도 이와 같은 상품을 더욱 많이 공급하여주고 싶지만 금감원의 여신규정을 비롯하여 인적보증의 문제 등이 얽혀있어 최근에는 신탁자체에서 상품을 만들기 보다는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정책자금과 결합된 상품도 고민하고 있다.

크레비스파트너스(이하 크레비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1억 미만의 규모로 투자하지만 투자로 인해 해당 기업의 신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후속 투자가 10배 ~ 20배까지 따라오기도 한다.

최근 벤처 금융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1세대 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는 편이다. 최근 사회적기업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정리가 늦어 채무가 증식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회사들이 많아서 지고 있다.

최근 기업재단, 소셜벤처 파트너스, 모태펀드

등을 통해 전환사채, 지분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모태펀드의 경우 고용부가 설정한 KPI가 손실을 보면 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전환하려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너무 이타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책임감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실 회사가 용기 내어 폐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용자가 손실이 날 경우 사회적경제나 소셜벤처의 폐업을 유도해줘야 되고, 정부나 조합에서 이를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일들을 사회적경제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3) 심사 탈락 주요 사유

논골신험

신험 중앙회의 여신험규정이 일반은행 여신험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서류가 미흡하거나 재무적 불안정성이 명백한 업체를 탈락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 가능하다면 더 많은 자금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급하고 싶다.

한국사회투자

모태펀드의 KPI가 손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잡혀있는 것 같이 사회투자기금도 대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시 사회적 가치가 불명확하거나, 경영진의 역량이 부족하고, 재무적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탈락시킨다. 사업성과가 불투명하거나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데 더

하여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상담을 오는 많은 기업들이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신나는조합

다른 기관과 사유가 비슷하다. 줄데만 주고 열악한데는 안주니까 열악한 분들은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다보니 더 힘들어진다. 민간에서도 못주면 어디서 받을 수 있겠는가.

복지유니온

전문적 금융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나 해당된다. 우리회사는 규모화가 중요한 물류, 유통기업이다보니 규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하지만 사실 사회적경제는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기업들은 전문적인 금융보다는 지역에서의 발전기반을 만들어 추가적인 고용, 서비스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낫다.

사회적경제 관련 네트워크들 중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 하지만 소규모의 대출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와같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10%대의 저축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금들은 오히려 3~4%면 충분하다.

크레비스

이 부분에 동의한다. 수평적 금융과 수직적 금융의 차이가 있는데 중간지원기관들은 생태계에서 사회적금융이 제대로 작동함을 입증하는 수직적 금융을 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체 인프라의 기반을 넓히는 수평적 금융이 필요하다. 만일

수평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손실감수에 과감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추심하는 형태로 나갈 수 있다.

물론 민간이 정책 예산도 잘 당겨오는 힘을 가져야 하지만, 수평적, 수직적 역할이 공존하지 않으면 성공해도 나중에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한국사회투자나 서울시가 수평적 금융을 잘 제공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정책자금 이용 시 애로사항 및 개선 방안

삼성떡프린스

사회투자기금을 처음 접했던 게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모임에서 진행했던 설명회를 통해서였다. 가까운 사회적기업이 사회투자기금의 용자를 단기로 이용하고 상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사회투자기금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현재 동작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회투자기금 관련하여 그분들에게 설명은 했으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이런 기관의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몇 년 전에 인건비 등 운영자금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자를 받으려 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법인사업단이기 때문에 용자를 받을 시 서류가 많은데다 법인 내에서는 용자를 받는다고 하면 이미지가 안좋아지는 부분을 고려하여 개인 신용대출로 해결한 적이 있다.

현재는 동작신협 이사장님이 지역에서 큰 일을 하시고 관계를 잘 가지고 계셔서 은행아니면 신협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사실 한국사회투자자와 같은 사회적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 몰라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유니온

현금서비스 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변분들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있다. 신나는조합으로부터도 사회투자기금을 1억 원정도 용자받고 최근에는 한국사회투자에서도 1억 1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 회사의 성장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올해 SK행복나눔재단 임팩트 투자에 최종 선정되어 데모데이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래에셋 모태펀드가 공동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은행, 사회적금융기관 등, 다녀보지 않은 곳이 없다.

사회적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것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반영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지금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이게 다 영업 외 수입이라 결국 당기순이익이 나더라도 손실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적금융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상 또 사회적금융을 이용하기도 까다롭다. 사회투자기금은 사실 중소기업 자금 대출보다 더 받기 힘들다. 중소기업자금 대출의 경우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재무제표를 아예 보지 않는다. 사업계획서만 보고 대출은 해주고 5년 미만은 또 부채비율은 보지 않는다. 어차피 자본이 없는 스타트업들의 특성을 알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맑은손협동조합

행복나눔재단에서 1억 5천만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었지만 법적으로 협동조합은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 결국 1억 원을 용자 받게 되었고 한국사회투자에게 5천만 원 제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었지만 내부사정에 의해 무산되었다.

안마원은 안마사 개인으로만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이 안마원을 세우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증금 1억 원을 환수 해야할 위기에 처해 한국사회투자에서 사회투자기금을 용자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지원받았던 1억 원에 2%의 이자가 붙는다니 조합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더군다나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2%의 이자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결코 저렴하지 않은 이자가 되어버린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정책자금을 비롯한 민간영역의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자금을 총괄하여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하다못해 총괄일람표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울베리사회적협동조합

정보를 주로 신나는조합을 통해 얻고 있었다. 이번 연구의 설문지를 통해 한국사회투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신탁의 도움으로 자금을 융통받았다.

농장부지 확장을 위해 신탁에 대출을 요청했다

니 농지가격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2%금리로 용자 해주겠다하여 감사했지만 나머지 50%를 자력으로 마련할 수 없는 사정이라 지금은 농장부지만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기후원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주)아이부키

우리 회사는 SH매각을 위한 사회주택을 짓고 있다. 현행 제도 안에서 SH 매각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될 때 사회주택 본연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한 공용공간을 만들고 싶은 것이 소셜하우징 사업자의 욕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공간을 만들기 쉽지 않다.

SH에서는 각 사회주택을 매입할 때에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을 호당으로 매기고 공용공간은 개별주택의 성능을 높였다는 명목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약간 올려 가격을 만들어주는 것 외에는 평가를 잘 해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사회주택사업자들이 어떻게 공용공간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을 지을 것인가?

자금 유치에서도 소셜하우징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허그)와 한국사회투자가 용자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비교해보면 한국사회투자는 물론 용자실적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소셜하우징 사업자들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다.

사실 주택 한 채 개발하는데 20억 원 정도가 드

는데 취득세 등을 내고 나면 1년 운영비도 안나온다. 이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사회주택을 개발한 환경이 안된다. 기금과 대출기금의 한도를 늘려 사회주택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사회투자재원의 현재와 미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과 사회투자기금

크레비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 벤처기업 인증이 사회적 기업 인증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 몇억씩 용자가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이다.

신나는 조합 악순환이다. 다른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곳이나 중진공도 올해 1조 4천억 원 정도를 풀었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는 이 막대한 금액을 통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일반 중소기업, 벤처에 비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 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데 사회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재무적 가치만을 심사하여 이루어진 대출이 추후에 결국 부실로 이어지면 '사회적기업은 부실하다.'는 편견만 남게 된다.

크레비스 벤처 금융의 경우 위낙 발전되어 있어, 몇 조씩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할 정도로 쑥여있다. 반면에 사회적금융 분야는 돈이 희소해서 더 정확하게 심사하여 투자, 용자를 하려하다보니 정확성이 높아진다.

논골신헌 정책자금과 기업 자금에다 지자체 기금이 혼용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있거나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 정보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보접근성이 격차가 곧 기업의 빈부격

차가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투자기금의 현재와 발전방향

한국사회투자 내년에는 아마 대출금리가 2%에서 조금 올라 갈 수 있다. 서울시는 CD금리를 베이스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2% 이상의 이자, 예를 들면 3%정도로 사회투자기금 이자의 조정에 대한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크레비스 3%대로 조정된다면 진짜 애매해진다. 지금 사회투자기금 대출을 받아가는 이유가 금리가 시중보다 1%p 낮아서인데 그마저 없다면 굳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용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

크레비스 금융 입장에서는 강남 등에서 상업자본을 끌어오는게 목표인데 그 이유는 전체 사회적경제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셜벤처를 아무리 육성해도 계속 사회투자기금을 쓰면 결국 소셜벤처캐피탈(Social Venture Capital : SVC)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사실 SVC도 그렇게 매력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투자기금은 받지 못한 기업들이 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만약 서울에서 금리를 1%p 높인다고 하면 사회투자기금의 매력도가 확 떨어진다.

신나는조합 CD금리 수준을 보면 사회투자기금 금리를 1%p 올려도 여전히 최저금리가 될 것이다.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도 3% 후반에서 4%대가 나오고 보증율이 붙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 사실 사회투자기금은 지금 임팩트 투자나 정책자금 가운데에서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

다. 규모가 있고 우수한 기업들만을 지원하려는 성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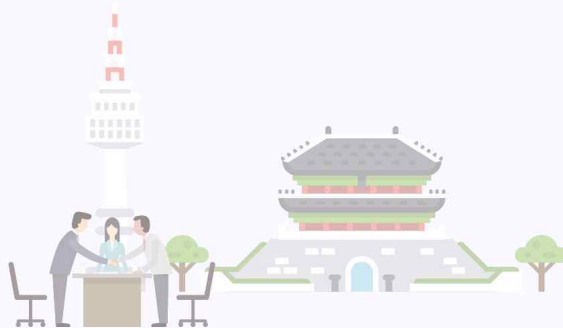
따라서 앞으로는 기금의 안정성 측면보다는 기금운용 분야에 맞는 유연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예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기금이 되거나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상품을 다양화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초기기업이나 수준이 낮은 기업에게 금리가 낮은 상품을 제공하고 조금 더 우량한 기업에게는 금리를 높이는 식의 역발상도 필요하다.

논골신허 지금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손실액을 0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 손실율이 0인 기금은 존재할 수 없다. 몇 년째 같은 이야기를 시에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크레비스 중진공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7% ~ -10%까지는 손실을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래부나 중기청은 손실 100%나 마찬가지인 연구비용도 1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사회투자, 2013, “2013년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조사”, 한국사회투자
2. 한국사회투자, 2014, “2014년 사회적경제 조직 자금수요 조사”, 한국사회투자
3. 임창규 외, 2015, “전국 인증사회적기업 자금수요 및 조달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4. 김양우 외, 2016, “경기도 인증사회적기업 자금수요 실태조사”, 수원대학교.

